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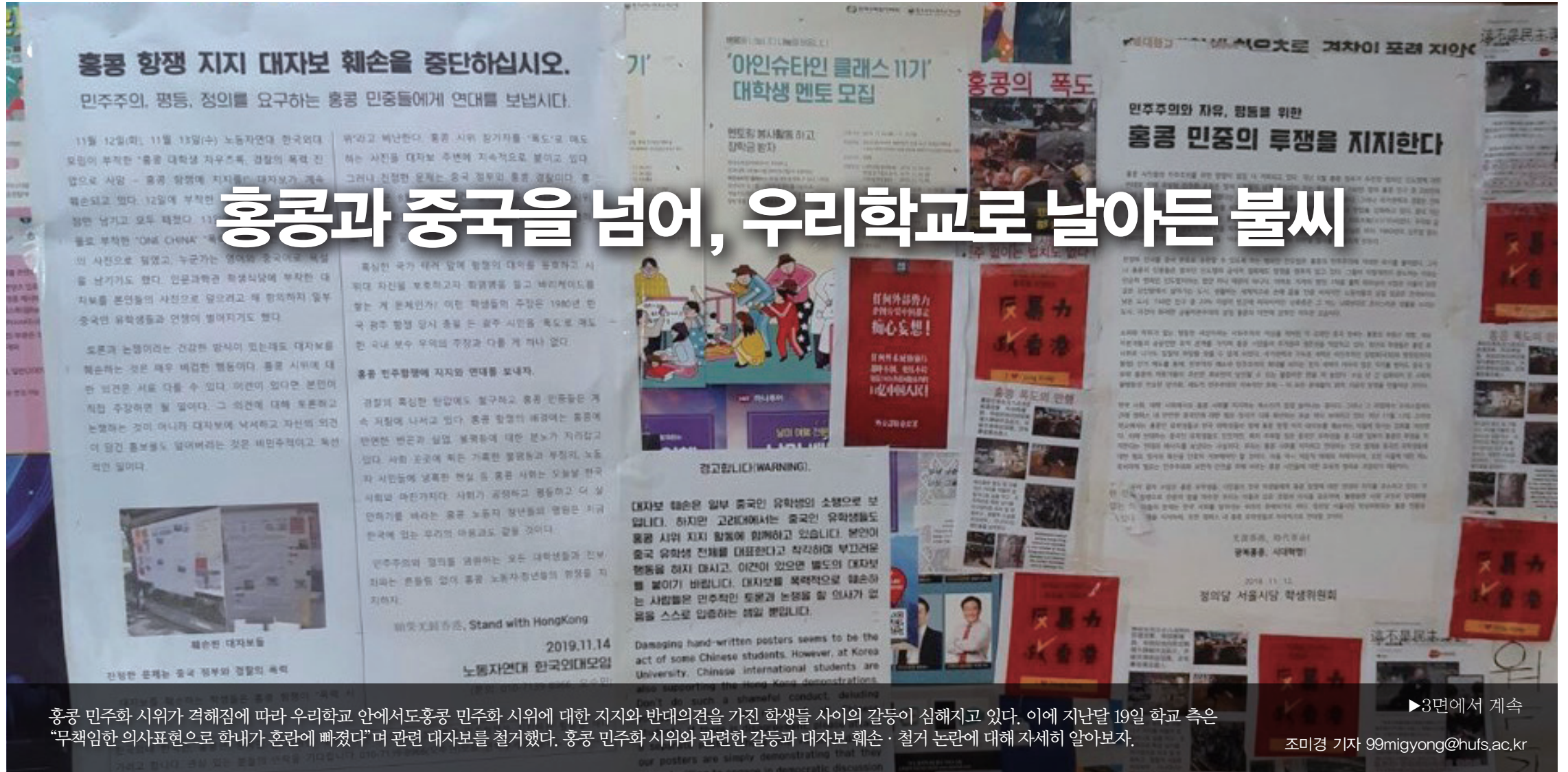
[심층] >> 4면
글캠 총학생회 선거

[심층] >> 5면
서울캠 총학생회 선거

[사회문화] >> 8면
철도 파업

[학술] >> 9면
스크린 독과점

홍콩과 중국을 넘어, 우리학교로 날아든 불씨



홍콩 민주화 시위가 격해짐에 따라 우리학교 안에서도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지지와 반대 의견을 가진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이에 지난달 19일 학교 측은 “무책임한 의사표현으로 학내가 혼란에 빠졌다”며 관련 대자보를 철거했다. 홍콩 민주화 시위의 관련한 갈등과 대자보 훼손·철거 논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3면에서 계속

조미경 기자 99migyoung@hufs.ac.kr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예비 신입생 응원 프로젝트 진행해

지난달 30일,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백년관과 그 일대에서 학생부종합전형 1차 합격자와 학부모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총학생회와 함께하는 예비 신입생! 합격 기원을 위한 응원! 프로젝트’가 열렸다. 이 프로젝트는 입학처 입학연구팀과 글캠 학생인재개발처 학생지원팀이 주최하고 글캠 총학생회가 주관했다. 모든 행사는 오전과 오후 각각 한 번씩 운영됐으며 단과대학 학생회와 학교 학생회 인력 총 150여 명이 동원됐다.



▲예비 신입생을 응원하는 학생들

글캠 총학생회는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같은 문구가 적힌 피켓을 응원했다. 뿐만 아니라 총 41개 학과는 단과대학별 응원을 진행했다. 해당 행사에선 우리학교 기

념품인 △파일△홍보물△부스티커△포춘쿠키△하트 등이 제공됐고 합격 기원 하이파이브도 진행됐다. 또한 글캠 총학생회 측은 ‘총학생회와 함께하는 2020학년도 합격 기원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통해 △학사제도△국제교류프로그램△기숙사△장학금△교통△레저△민생복지△지식△학생회△동아리△문화생활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교육지원팀과 디지털서비스팀은 △이번 해 입학처 활동△세계민속축전△글캠 관련 영상 등 동영상상을 통해 학교를 홍보했다. 해당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학부모 대기실 장소인 백년관 국제세미나실에 다과를 제공했으며 소원 나무 두 그루를 설치해 소원 카드를 걸 수 있도록 마련했다.

하지만 기자 99_jina@hufs.ac.kr

우리학교 2020학년도 수시 논술고사 실시돼

지난달 23일과 24일 양일간,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에서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수시 논술고사가 진행됐다. 시험은 100분간 진행됐으며 인문학적 소양과 사회과학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통합교과형으로 출제됐다. 이번 논술고사는 모집 단위에 따라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실시됐으며 이를 통해 서울캠퍼스는 378명, 글로벌캠퍼스는 115명으로 총 493명이 선발된다. 이번 해 논술 지원자는 총 18,544명으로 서울캠퍼스는 약 42:1, 글로벌캠퍼스는 약 24: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평균 37.6:1이란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우리학교는 시험 기간 동안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과 우리학교 홍보대사 ‘새로미’를 주축으로 수험생에게 하트와 간식을 증정하는 격려 이벤트가 열렸다. 또한 우리학교 사이버관에선 양 캠퍼스 총학생회 장단의 주관 아래 학부모를 위한 토크콘서트도 진행됐다. 해당 행사는 양일 오전과 오후 각각 차례씩 열렸으며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이 주를 이뤘다. 이에 대해 수험생 이시연 씨는 “다른 학교에 비해 밝은 분위기여서 긴장이 풀렸다”며 “다들 열심히 응원해줘서 힘이 났다”는 소감을 전했다.

안효빈 부장 97anhyobin@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2020년 외국어교육과정 안내

◆해외연수 그 이상의 효과!

한국외대 외국어연수평가원의 외국어교육과정은 외국어 및 외국학 교육 전통에 실용성을 더한 국내 최고의 외국어 마스터 과정으로, 대학(원)생,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국어교육과정으로는 말하기·듣기·쓰기·읽기를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20주 주간과정, 주말외국어교육과정, 단기 실용회화능력을 집중 향상시키는 야간과정, 방학특별과정 등이 있습니다. 또한, 매년 40개 이상의 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어학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며, 기관 특성 및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외국어교육과정을 설계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교육일정

구분	과정명	개강시기	2020년 교육일정
주중과정	20주 주간과정	2월, 8월	02.03. ~ 06.19. 08.03. ~ 12.18.
	방학특별과정	1월, 7월	01.14. ~ 01.31. 07.16. ~ 07.31.
야간과정	야간과정	3월, 9월	03.23. ~ 06.11. 09.21. ~ 12.10.
	대학원외국어시험대체과정	3월, 9월	03.03. ~ 06.16. 09.01. ~ 12.15.
	주말외국어교육과정	3월, 9월	03.07. ~ 07.20. 09.05. ~ 12.19.
주말과정	평생교육원 통번역과정	별도문의	

※과정별 상세일정 및 교육비는 홈페이지 참조(http://www.hufs.ac.kr)

※외대생(동문) 교육비 할인 제공 / 일부 과정에 한함

◆기관 위탁 외국어교육과정 소개

교육특징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기업체, 공공기관 및 단체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교육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포르투갈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외
강사진	언어별 전공학과 전임교수, 외국어연수평가원 전임 교강사
절차	상담 → 교육모듈 개발 → 입교 → 교육 진행 → 평가 및 피드백
교육특전	교육과정 외 특별프로그램 제공(지역화 특강, 주임교수 튜터링) 외국어능력평가 제공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 제공

◆외국어교육 상담 및 문의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구분	연락처	이메일
20주 주간과정	02-2173-2525	flttc@hufs.ac.kr
주말과정, 기관 위탁과정	02-2173-2515	
야간과정, 방학과정	02-2173-2524	edulife@hufs.ac.kr
평생교육원 통번역기초과정	02-2173-2524	

다미르 쿠센 주한 크로아티아 대사 초청강연 열려

이번 달 19일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어문학과 206호에서 다미르 쿠센(Dr. Damir Kušen) 주한 크로아티아 대사 초청 강연이 열렸다. 이 강연은 동유럽학대학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이하 세크어과)가 주관했다. 강연엔 △크로아티아 외교사절단△김성환 세크어과 학과장△권혁재 세크어과 교수가 참석했다. 또한 크로아티아 문화 예술단도 △백남준아트센터△국립현대미술관△크로아티아 국립현대미술관의 상호교차전시 협의를 위해 방한했다.

본 강연 시작 전 우리학교 학생들은 크로아티아와 외교 사절단과 다미르 쿠렌 대사를 위해 크로아티아 국가를 피아노 반주에 맞춰 불렀다. 그 후 강연은 크로아티아어로 진행됐고 저학년 학생들의 이해를 위한 간단한 통역도 함께 있었다. 이날 강연은 “대한민국의 새롭게 떠오른 관광지 크로아티아와 향후 전망”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강연 이후엔 간단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다미르 쿠센 대사는 “대한민국 대학의 크로아티아어과가 이



▲주한 크로아티아 대사 강연 모습

렇게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 놀랍다"며 "크로아티아의 문화와 언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의 관계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세크어와 학생들에게 "크로아티아에 직접 가보면 크로아티아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크로아티아 여행을 권하기도 했다.

한편, 다미르 쿠센 대사는 △크로아티아·공화국 외교부 차관 △크로아티아 국제 관계 연구원 △정책 연구 위원회 대표 △핀란드·에스토니아·호주 및 뉴질랜드 대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서미 기자 seomi99@hufs.ac.kr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에서 '미네르바 베스트 강의상' 시상식 열려

지난달 25일,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양관 콜로키움실에서 '제2회 미네르바 베스트 강의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교강사들의 자기합양을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시상식은 지난학기 첫 미네르바 베스트 강의상 시상식을 시작으로 두 번째다. 수상 분야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초교양 영역△핵심교양 영역△자유(선택)교양 영역으로 구성됐으며 수상자에게는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 명의의 상이 부여됐다. 이날, 수상자는 △기초교양 영역의 신흠민 교원△핵심교양 영역의 이경배 교원△자유(선택)교양 영역의 최나영 교원이었다. 시상을 맡은 박상원 우리학교 미네르바 교양대학 학장은 “교양대학에서 우수한 강의를 해준 교원들에게 격려를 표하고 교수법 및 강의노하우 공유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매 학기 학생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강의 평가를 기반으로 우수 강의자를 선정 및 시상하겠다”며 앞으로의 계

획을 드러냈다.

한편 지난 2014년, ‘교양학부’의 승격으로 만들어진 우리학교 미네르바 교양대학은 △21세기가 요구하는 콘텐츠를 갖춘 인재△인성과 창의적 사고를 갖춘 인재△소통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미네르바 교양대학 측은 교양 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해 교양과목을 △기초교양△핵심교양△자유(선택)교양으로 구성했다. 이어 융·복합적 사고 능력 함양을 목표로 1학년은 대상으로 미네르바 인문강좌가 개설됐다. 이번 해 기존 재학생들은 ‘교양 영역별 이수 규정’에 따라 총 32학점의 교양과목을 듣게 됐다.

김나현 기자 nahyuuuny@hufs.ac.kr

**이은애 우리학교 대학원생, 대한전자공학회
최우수논문상 수상해**

지난달 22일과 23일 양일간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리카이 샌드파인 리조트에서 대한전자공학회가 주관한 추계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학술대회 발표 분야는 △통신·반도체·컴퓨터·신호처리·산업전자·시스템 및 제어·뉴이머징에리아(New Emerging Area)로 구성됐다. 이 학술대회에선 약 37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이은애(일반·전자공학 17) 씨는 '잔상 보정 기법을 사용한 다이나믹 방사선 디텍터의 강인한 잡음 파워 스펙트럼 측정'이란 논문으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고 삼성전자가 후원하는 시상금 500만 원을 받았다. 이 논문에선 신호처리



▲논문상 시상식 현장의 모습

분야의 Δ 방사선디
텍터 Δ NPS(noise
power spectrum) Δ
잔상보정인자(lag
correction factor)의
내용을 다뤘다.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이은애 씨는 “학과를 대표해 상을 받게 돼 기쁘고 같이 고생한 △교수님·△실현실 식구들·△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한 “우리학교 연구원들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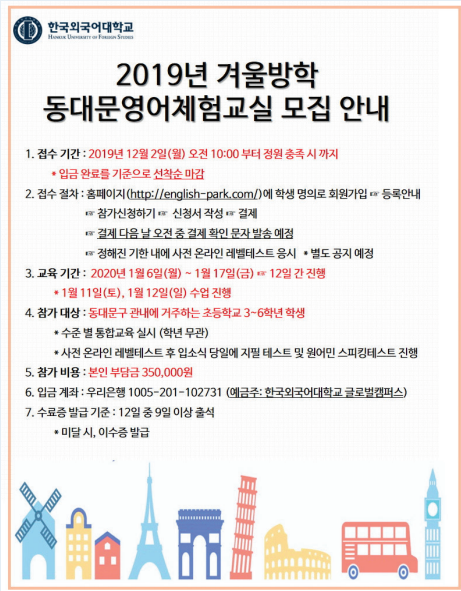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그들에게 많은 가능성의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조하영 기자 99young@hufs.ac.kr

우리학교, 동대문구와 함께 영어체험교실 진행해

겨울방학을 맞아 우리학교와 동대문구청이 연합해 다음 해 1월 6일부터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영어체험교실을 진행한다. 이는 총 12일 동안 진행되는 통학형 프로그램으로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교육은 사전 레벨테스트를 통한 맞춤형 수준별 수업으로 진행된다. 또한 본 수업은 캐나다 초·중등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가 진행하고 한국인 강사가 보조한다. 뿐만 아니라 스토론스쿨스노래스게임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 영어 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한 박 승현 우리학교 TESOL전문교육원 과장(이하 박 과장)은 “동대문구와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한지는 오래됐다”며 “관내에 있는 동대문구 학생들이 영어에 더 친밀하



▲겨울방학 영어체험교실 안내

고 재밌게 다가가할 수 있도록 해당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의 공적인 의미를 실현하고 이를 통한 △우리학교의 이미지 상승 △TESOL 전문 교육원의 이미지 제고 △홍보 상승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주 동안 어린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에이 기간이 큰 사고 없이 영어를 배우고 영어와 친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는 희망사항을 전했다.



동대문구

최민선 기자 99minsun@hufs.ac.kr

**우리학교, 동대문구청과
'기록물 수집 및 활용 업무협약'
체결해**

지난달 27일 여호교 우리학교 세계민속박물관 관장은 우리학교가 동대문구청과 기록물 수집 및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동대문구 사회에 대한 효율적인 기록화 및 기록활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기록문화 저변 확대△기록 콘텐츠 개발△수집 연계 체계 구축 등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동대문구청에서 펼치는 ‘동대문구 기억여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됐다. 동대문구 기억여행은 구 자체의 기록을 통해 구민들의 일상과 주요 장소를 재조명해 보는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다. 주최 측은 △청량리역△강동시장△오스카극장 등 동대문구의 상징적 장소를 사진과 음성 등이 결합한 30여개의 기록 콘텐츠로 제작해 이번 달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우리아고와외의 업무협약에 대해 ‘결실 위기에 놓인 과거 동대문구 관련 기록을 발굴하고 현재의 변화상을

기록해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 세대가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다졌다.

한편 우리학교 세계민속박물관은 교육 이
념에 맞춰 학생들이 다양한 국가의 전통문화
를 생동감 있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
립됐다. 또한 세계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다
각도로 연구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하에 역사관을 설립해 우리학
교의 각종 △기구△단체△구성원들이 활동
한 증거와 기록유산을 관리 및 보존한다.



12)

조미경 기자 99migyeong@hufs.ac.kr

홍콩과 중국을 넘어, 우리학교로 날아든 불씨

지난 6월부터 홍콩 내에선 ‘범죄인 인도 법안(이하 송환법)’을 계기로 일어난 민주화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점점 격렬해지는 시위와 이를 진압하려는 정부 사이의 첨예한 입장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홍콩 민주화 시위는 홍콩인이 대만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홍콩으로 도피하면서 그를 처벌하기 위해 발의된 송환법 추진이 발단돼 발생했다. 홍콩인들은 중국정부가 이 법안을 이용해 홍콩의 반중국 인사를 중국으로 잡아가는 등 홍콩의

민주주의를 억압할 것을 우려했고, 우려는 시위로 진화했다. 본래 홍콩 시민들은 송환법 폐지와 관련된 시위를 나섰지만, 시위의 목적은 홍콩 민주화로 변해 가고 있다. 우리학교 내에서도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학교에서 일어난 홍콩 민주화 시위지지 대자보 훼손·철거부터 홍콩 민주화 시위 관련 갈등까지 자세히 알아보자.

◆홍콩 민주화 시위지지 대자보 훼손과 이와 관련한 갈등

우리학교 내에서도 홍콩 민주화 시위에 관한 갈등이 벌어졌다.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일부 우리학교 학생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대자보를 학교 곳곳에 부착했다. 하지만 시위를 반대하는 학생들은 대자보를 ‘One China’, ‘폭력시위를 반대한다’ 등의 문구가 쓰인 종이에 덮거나 대자보에 영어와 중국어로 욕설을 남겼다. 결국 대자보는 게시된 지 6시간만에 1장만 남겨지고 모두 사라지거나 훼손됐다.

이에 노동자 연대 한국외대 모임은 대자보를 통해 “토론과 논쟁이란 건강한 방식이 있는데도 대자보를 훼손하는 것은 매우 비겁한 행동”이라며, “다른 의견에 대해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대자보에 낙서하고 홍보물로 덮어버리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일”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지난달 14일 우리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자율의 터전인 대학에서 대자보는 개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공중으로 표출하는 선언이며 권리”라며 “대자보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고비를 이겨낸 우리 학교 학생사회에 대한 기만이며, 학생자치가 지향하는 가치에 전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홍콩 민주화 시위를 반대하는 일부 학생들과 인문과학관(이하 인문관) 학생식당에 대자보를 부착한 학생들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자보를 부착한 오수민(일반·국어국문 18) 씨는 “인문관 학생식당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를 반대하는 학생들이 대자보에 욕설을 적는 것을 보고 항의하자 학생들이 중국어로 조롱하듯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범석 우리학교 학생·인재개발처 학생지원팀 과장(이하 김 학생지원팀 과장)은 “지난달 14일 4시경에 인문관 학생식당에서 충돌이 발생했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나가보니 대자보 주변으로 중국인 유학생으로 추정되는 학생들 30~40명이 모여 있었고 욕설과 고함이크들렸다”고 그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달 15일 인문관에 우리학교 한 여학생의 얼굴을 합성해 욕설을 덧붙인 게시물이 붙여졌다. 이 학생은 우리 학교에 게시됐던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 훼손에 대해 항의하다 홍콩 민주화 시위를 반대하는 학생에게 사진을 찍힌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갈등 양상에 대해 이준성(사회·미디어 19) 씨는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학생들이 겪는 갈등 자체는 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양측 모두 이성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리학교의 홍콩 민주화 시위관련 대자보 철거

지난달 19일 학교 측은 ‘홍콩시위 대자보 부착에 대한 학교 안내문’을 게시하며 홍콩 민주화 시위와 관련된 대자보를 철거했다. 우리학교 국제교류처장과 학생·인재개발처장은 대자보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개개인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무책임한 의사표현으로 인해 학내가 혼란에 빠진다면 학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물리적인 충돌로 인한 인명 피해 가능성을 생각해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학교 구성원이나 자치기구가 아닌, 외부단체의 홍콩시위 관련 대자보 교내 부착 및 관련 활동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에 대해 학생들은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우리학교 한 학생은 대자보를 통해 “우리학교 학생이 외부 단체의 소속이란 사실 하나만으로 그 단체의 이름을 빌린 학생의 의견표출을 제한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며 “학교는 외부단체의 대자보 부착 및 안전을 핑계로 공론장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진희(영어·영문 16) 씨는 대자보를 통해 “학내에 붙은 홍콩 시위 대자보는 모두 학내 구성원이 붙인 것임에도 외부단체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홍콩 시위에 관한 지지의견을 내지 못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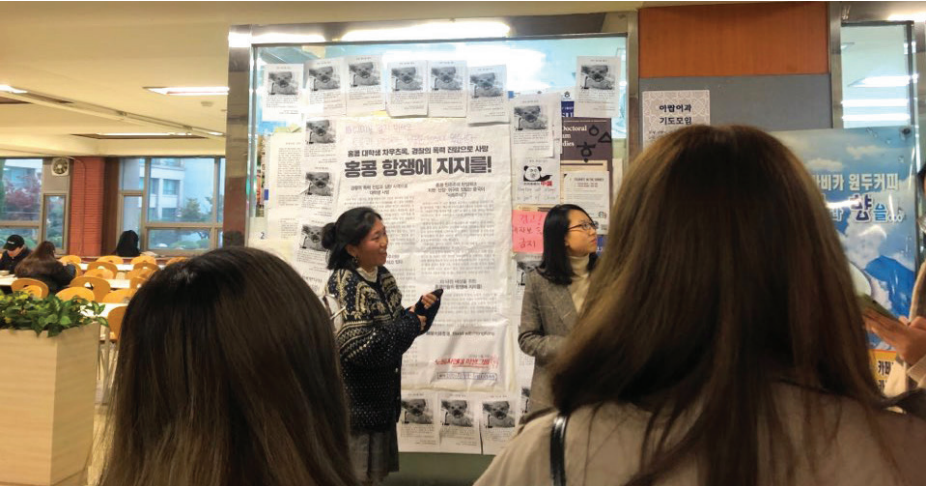


▲대자보 위에 ‘one china’라는 문구의 종이 가 붙여진 모습

▲욕설과 함께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여학생을 합성한 게시물



▲홍콩 민주화 시위 대자보 철거 관련 우리학교 규탄 기자회견



▲인문관 학생식당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학생들

막으려는 명분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더했다. 지난달 20일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스펙트럼’은 “학생들이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다’는 것은 활발한 공론장의 형성 과정이란 방증”이라며 “물리적 충돌은 이와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또한, “학교는 기계적인 중립을 취하며 학생들의 담론 형성 과정 자체를 폭력적으로 억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 △노동자연대 한국외대모임△우리학교 생활자치도서관△우리학교 정치외교학과 사회과학연구회 갈증△우리학교 중앙동아리 왼쪽날개 등은 홍콩 항쟁지지 대자보를 무단으로 철거한 우리학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장에서 학생들은 “이견과 갈등을 이유로 의사

표현 자체를 막는 대학은 우리학교뿐이다”며 “홍콩 항쟁에 대한 지지활동과 학내 민주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이와 더불어 학교 측에 △반민주적 대자보 철거에 대한 사과△홍콩 시위 대자보 부착제한 방침철회△사건 재발방지에 관한 약속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학생지원팀 과장은 외대학보와의 인터뷰에서 “폭력사건 발생 후 이러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노동자 연대모임 소속 학생에게 레넌벽(Lennon wall)*과 같은 공론장 설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 연대모임의 수많은 대자보가 각 학교의 학생회장 선거 포스터나 다른 게시물의 공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규정상 외부단체의 대자보 부착은 불가하지만 대자보를 통해 민주적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 마련을 제안했는데 이를 거부해 아쉽다”고 토로했다.

*학교 안에 설치된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내용의 포스트잇을 붙이는 공간

◆다른 학교의 홍콩 민주화 시위 관련 대자보 훼손·철거와 갈등

다른 학교에서도 홍콩 민주화 시위와 관련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13일 레넌벽에 홍콩 시위지지 의사를 밝힌 한양대학교(이하 한양대) 학생 김 모씨의 신상이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퍼졌다. 뒤이어 김 모씨는 중국인에게 동전을 맞는 등의 곤욕을 치렀다. 김 모씨는 “홍콩 민주화 시위지지 대자보를 게시하고 나서 50~60명의 중국인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대자보를 떼라’고 욕설했다”며 “중국학생들이 ‘홍콩이 한국이랑 뭘 상관이나’, ‘밤길 조심하라’고 조롱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1일 한양대는 인문과학관에 설치됐던 홍콩시위 지지대자보와 수백 장의 포스트잇을 한양대 박물관으로 옮겼다. 명지대학교에선 홍콩 시위지지 대자보로 인해 우리나라와 중국 학생 간의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들은 홍콩 시위지지 대자보를 두고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학교 경비실에서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서울대학교에선 레넌벽이 철거됐다. 홍콩 민주화 시위를 둘러싸고 상충된 입장을 가진 학생들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학교 측이 ‘허가받은 홍보물만 부착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대해 김명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은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치국가지만 도서관에서 게시물을 걸 댄 반드시 중앙도서관 신청 절차를 밟게 돼 있다”며 “건설적인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게 과도한 표현이나 자극적인 형식 등을 피해줄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대자보를 붙인 ‘홍콩의 진실을 알리는 학생모임’(이하 학생모임)은 학교 측 방침에 따라 자진 철거를 진행하고 새로운 레넌벽을 세울 계획을 밝혔으며 레넌벽이 훼손된 사건과 관련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려대학교(이하 고려대)에서도 홍콩시위지지 대자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달 11일 고려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엔 안암캠퍼스 정경대학 후문 게시판에 붙여진 홍콩 시위지지 대자보가 훼손된 것을 봤다는 목격담이 지속해서 올라왔다. 이와 관련한 KBS와의 인터뷰에서 노동자연대 고려대 모임 소속 한 모씨는 “중국인 유학생들

에게 대자보 위에 종이를 부착하면 안된다고 하니 나를 에워싸고 중국어로 조롱했다”며 “열댓 명이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으며 달려왔다”고 밝혔다. 홍콩 민주화 시위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학내 구성원들의 갈등 해결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글로벌캠퍼스 제41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그 진행과정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에서 제41대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진행됐다. 이번 선거는 이례적으로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두 선거본부(이하 선본) 모두 경계를 받으며 시작했다. 시작 전부터 뜨거운 이슈를 몰고 온 두 후보에 대한 관심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어졌다. 이에 글캠

제41대 학생회장 선거의 △선거시작 전 경계내용△정견토론회△‘시너지’ 선본의 후보자격 박탈△시너지 정후보의 대자보 부착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 입장에 대해 알아봤다.

◆선거운동기간 시작 전 경계

글캠 제41대 학생회장 선거는 경선으로 진행됐다. ‘시너지’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출마를 선언했다. ‘The 본’은 처음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선거 운동 시작 전에 두 선본은 중선관위로부터 경계를 받았다. 지난 달 5일부터 7일까지 선거 최종 후보 등록을 위한 추천인 서명이 진행됐다. 추천인 서명 명부를 바탕으로 중선관위는 지난달 7일 입후보자 자격 심사를 시행했다. 이 과정 중 시너지의 추천인 서명 명부에서 선거시행세칙 중 입후보 추천인 명부와 관련된 제9조의 서명 대필 행위 금지 항목인 6항6조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다. 이에 중선관위는 조사를 진행했고 시너지가 추천인 서명 과정에서 선거시행세칙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선거시행세칙 제9조 7항에 따라 경계 논의 및 의결이 진행됐으며 그 결과 지난달 8일 해당 선본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The 본 또한 선거운동 시작 전에 경계를 받았다. 지난달 10일 중선관위는 The 본 선본의 운동원명부에 선거시행세칙 제32조(선거운동제한)에 저촉되는 선거운동원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접수했다. 중선관위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The 본 선본의 운동원 명부에 공식적인 사퇴 수리가 되지 않은 A단과대학 산하 기구의 회장이 있단 사실이 확인됐다. A단과대학 학생회장은 추천인 서명 기간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달 7일 A단과대학 산하 기구의 회장으로부터 구두로 사퇴 의사를 전달받았으나 공식적인 사퇴서 제출은 같은 달 10일에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이에 중선관위는 공식적 절차를 통한 사퇴서 제출을 사퇴 기준으로 정했고 The 본 선본에게 선거시행세칙 위반에 따른 주의 조치를 취했다.

◆후보자 정견토론회

지난달 19일 글캠 백년관 국제세미나실에서 후보자 정견토론회가 열렸으며 △개회선언 및 후보자 선서△입후보자 기초연설△중선관위 공통질의△학내 언론 질의△참관인 자유질의△후보자간 질의 및 응답△마무리 연설 순서로 진행됐다.

시너지

Q1. 통번역대학 이수학점을 150학점에서 146학점으로 줄인다고 하셨는데 왜 다른 단과대학과 같은 134학점이 아닌가요?

A. 통번역 대학은 통역·번역에 특화된 단과대학이기 때문에 다른 어문학과들에 비해 언어 관련수업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수학점을 4학점만 줄여 통번역대학의 특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Q2. 중앙감사위원회 세칙을 재정립하고 중앙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회를 선발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총학생회가 감사위원회를 선발하면 이미 선발된 사람들 중 임명되는 중앙감사위원장은 허수아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조항을 넣으셨는지 궁금합니다.

A. 학생이 학생을 감사하는 것은 말에 아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해 중앙감사위원장의 비리와 직무유기로 중앙감사위원회는 무산됐습니다. 따라서 총학생회뿐만이 아닌 학생들 모두가 중앙감사위원회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The 본

Q1. 제시한 셔틀버스 노선 개선방안을 보면 기존의 한 구간으로 운영되던 노선이 두 구간으로 나뉘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충분한 회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충돌지점이 생겨 사고위험률이 높아지고 오히려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 받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잘못을 짚어주신 부분에 대해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셔틀상행은 많은 학생이 이용하지만 하행은 많이 이용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 긴 시간 동안 내려옵니다. 사실 이 공약은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한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체감하고 나중에 더 좋은 방법으로 고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Q2. 스마트도서관 건립에 대한 추가예산 마련을 촉구한다고 하셨는데 서울캠퍼스의 경우 학교 측 지원 외에도 여러 부처의 협업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캠퍼스의 경우 이같은 협업이 쉽지 않을텐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A. 아직 이 부분에 대한 학교의 설명이 없기에 스마트 도서관 착공 촉구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총장과의 대화에서 총장님이 해당 예산을 구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나중에 있을 여러 행사들에서도 졸업생

이나 학교 부처에 얘기한다면 예산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3. 현재 건물 노후화가 상당부분 진행됐는데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교양관 내부가 아닌 교양관 외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캠퍼스의 인문과학관도 교양관보다 더 오래된 건물이지만 엘리베이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공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너지 선본의 후보자 자격 박탈

중선관위는 지난달 22일 선거시행세칙 제33조(재정세칙)에 의거해 시너지 선본과 The 본 선본에 대한 선거 사무내역 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감사 과정 중 시너지 선본 측에서 재정세칙을 규정한 제33조에 저촉되는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시너지 선본이 제출한 선거자금내역 상 지난 10월 22일 이전의 선거 자금 지출에 관해 △결산내역△통장△영수증 상의 입증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프로필 사진 촬영 비용△정책자료집 외주 디자인 비용△선거운동원 모집에 따른 식사 및 음료 대접 비용 등 지출도 대다수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중선관위는 시너지 선본 측에 추가 자료 제출 및 명확한 소명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너지 선본은 재정세칙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자금을 복수계좌로 지출하며 선거자금은 단일계좌로 사용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벗어났다.

이에 중선관위는 시너지 선본이 선거시행세칙 제33조△2항△3항△4항△6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두 번째 경고 조치를 취했고 이에 시너지 선본은 이의를 제기했다. 시너지 선본은 입후보 마감일에 계좌 정보를 제출했기에 해당 경계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중선관위의 지시로 추가적인 영수증을 제출했으므로 추가적인 경계는 이중징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일계좌를 사용해야 한다는 선거시행세칙 개정안이 통과된 시점인 9월 3일 이전의 선거 자금 지출과 관련해선 시너지 선본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자료집 디자인 외주 비용의 경우엔 선본 측의 부모님이 지인에게 직접 송금해 후보가 관련 지출을 인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감조치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선관위는 다시 논의를 진행했으나 시너지 선본이 단일계좌를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모든 선거자금을 지출한 계좌를 제출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미뤄 봤을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추가자료제출 요구는 경계가 아닌 소명기회제공 차원이었기에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책자료집 디자인 비용은 후보자가 아닌 타인의 자금이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공식적인 선거자금이 아니며 이는 선거자금과 관련된 재정세칙을 원칙적으로 위반한 것이기에 이의제기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로 인해 시너지 선본이 받은 누적된 징계는 총 경고 4회와 주의 1회이다. 선거시행세칙에 따르면 경고 조치가 3회 이상 누적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 자격이 박탈된다. 따라서 지난달 23일 중선관위는 시너지에 대한 후보자 박탈을 공고했다.

◆시너지 정후보의 대자보 부착과 중선관위의 입장

시너지 선본의 정후보였던 박종성(통번역·중국어 14) 씨는 ‘제40대 중선관위의 명백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란 제목의 대자보를 게시했다. 박종성 씨는 대자보를 통해 중선관위에게 △중선관위 발족에서의 편파성 △올바른 경계를 부과하지 않은 중선관위의 만행△중선관위원 이외의 사람의 업무 개입△학생사회 신뢰훼손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먼저 박종성 씨는 중선관위원의 중립성에 대해 지적했다. 중선관위 각 위원직은 단과대학 학생회장들이 맡고 관례적으로 총학생회장이 중선관위장이 된다. 이번 해 발족된 중선관위 위원직은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중앙집행위원장△국제지역대학 비상대책위원장△경상대학 학생회장△공과대학 학생회장△통번역대학 학생회장이다. 하지만 The 본 부후보가 이번 해 경상대학 홍보국장직을 맡았음에도 경상대학 학생회장을 중선관위원으로 발족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에 저촉되는 공정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올바른 경계를 부과하지 않은 중선관위의 만행을 지적했다. 지난 달 27일, 시너지 선본은 추천인 대필 서명으로 경고 1회를 받았다. 이는 추천인 대필 서명 조항을 위배할 경우 주의 혹은 경고 조치를 부과한다는 선거시행세칙을 따른 것이었다. The 본 선본 역시 선거운동원 명부엔 공식적인 사퇴 수리가 되지 않은 A단과대학 산하 기구의 회장이 있는 것이 확인돼 주의 1회를 받았다. 그러나 선거시행세칙 제32조 선거운동 제

한 항목엔 ‘단과대학 학생회장 및 소속 간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경고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표기돼있다. 또한 제30조 유세항목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가 선거운동에 참여하였을 시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에게 경고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대해 박종성 씨는 The 본 측이 경고 조치에 해당하는 조항을 위반했음에도 중선관위는 두 징계 모두 격하된 주의 조치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선관위가 아닌 사람이 중선관위 업무에 개입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지난달 22일 시너지 선본은 중선관위 직인이 찍히지 않은 선전물을 배부했다는 이유로 경고 1회를 받았다. 하지만 중선관위원이 아닌 인물이 직인을 찍어주는 것이 금지임에도 현재 총학생회 간부가 직인을 찍는 과정에 개입했고 중선관위원들은 이에 대해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선관위의 무책임한 의심에 대해 비판했다. 지난달 23일 시너지 선본은 재정세칙을 크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 2회와 주의 1회에 해당하는 경계를 받았다. 박종성 씨는 이에 대해 시너지 선본이 참고한 선거시행세칙은 개정 전 세칙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세칙의 1조부터 9항까진 신설조항이므로 소급효금지 원칙에 따라 9월 3일 이전의 영수증의 취합 필요성에 대한 인지 및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종성 씨는 여타 계좌 사용으로 인한 선거시행세칙 제33조 6항의 위반사항인 은닉에 대한 경계 확정 근거를 정확한 물증과 함께 증명할 것을 요구했다.

대자보가 부착된 직후 중선관위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대자보 내용에 대해 소명했다. 먼저 중선관위의 중립성에 관한 내용에 대해 중선관위는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감정을 배제해 공정하고 정의로우 원칙을 내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선거운동본부로 치우쳐진 결정을 내리지 않기 위해 상호견제하며 선거시행세칙만을 기반으로 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올바른 경계를 부과하지 않은 중선관위의 만행에 대해 소명했다. △조치를 내릴 수 있다△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아래의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와 같은 경계 부과와 관련된 상이한 표현에 대해 중선관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이해했다. 중선관위에 따르면 경계 부과에 있어서 ‘할 수 있다’와 같은 가능성이 나타난 단어에 대한 경계 수위에 대한 중선관위의 재량권을 넓혔다고 밝혔다. 반면 ‘취한다’와 같이 강제성이 나타난 단어가 적시된 경우에는 중선관위의 재량권을 좁혀 판결했다. 또한 양 선거본부에 동일한 갖대를 가지고 의결을 진행했으며 이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경계 부과에 대한 의결 과정에도 나와 있다.

이어 중선관위는 외부인이 중선관위의 업무에 개입한 내용에 대해 선거시행세칙 상 반드시 중선관위원이 선전물에 대한 직인을 찍어야 한다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학생회 집행위원에게 업무를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에 대해선 각 선본 모두 동의했으며 이 모든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다.

마지막으로 중선관위의 무책임한 의심에 대해 소명했다. 중선관위에 따르면 시너지 전 후보의 말과 같이 선거시행세칙은 9월 3일에 개정시행됐기에 중선관위 역시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따라 감사를 진행했다. 중선관위가 시너지 선본에게 문제를 삼은 기간은 9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약 한 달 반가량의 기간이었다. 중선관위는 누락된 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청했고 시너지 선본은 이를 인정했다. 이어 시너지 선본의 재정세칙 위반은 단순한 ‘선거자금 지출 은닉’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 ‘단일 계좌 사용’에 대한 위반이기에 경계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8일 글캠 백년관 국제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제41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개표 결과 총 3153표 중 △찬성 2158표△반대 603표△무효 317표△유실 75표로 ‘The 본’ (정후보 박장원, 부후보 송민경)이 당선됐다.

제54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선거, 다시 학생사회에 빛 비출까

이번 달 3일과 4일, 이틀간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진행됐다. 이번 선거의 후보자는 김나현(서양어·프랑스어 15) 씨와 김민영(LT·18) 씨로 총 한 팀이 출마했다. 1년 만에 총학생회가 탄생할지에 대한 기대가 모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6일 총학생회장단 후보자를 대상으로 ‘후보자 공청회’

가 열렸다. 해당 공청회에서 어떤 질의들이 오갔으며, 후보자단이 주장하는 공약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후보자단을 통해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제54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단 선거

이번 제54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단 선거엔 김나현(서양어·프랑스어 15) 씨와 김민영(LT·18) 씨가 출마하며 총 한 팀의 후보자단이 구성됐다. 후보자단의 공약은 △‘총출동’(이번 해로 끝장내는 총장 선출 공동행동)△교육 권리△문화△생활·주거·복지△소통·자치△인권·사회·연대로 총 6가지다. 특히 2021년 총장선거에 재학생 참여 보장을 목표로 하는 총출동은 학생의 총장선출권 보장과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 공약 이행 내역 평가를 포함한다. 후보자단은 “당선이 된다면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총장선출권 행위를 위한 행동에 돌입하고자 한다”며 의미를 밝혔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26일, 이러한 공약들을 기반으로 한 후보자 공청회가 열렸다. 해당 공청회에서 후보자단들은 학내 언론사 및 학생들의 질의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거기간은 이번 달 3일과 4일로 총 이틀간 진행된다. 이에 본격적인 선거기간 전 지난달 21일부터 이번 달 2일 자정까지 후보자단은 선거운동기간을 갖게 된다. 개표는 투표마감 후 1시간 후부터 진행된다.

◆후보자 공청회

지난달 26일, 우리학교 대학원 BRICS 화상강의실에서 제54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단 후보자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번 공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했으며 후보자단을 비롯한 서울캠퍼스 재학생과 학내 언론사 등이 참여했다. 이날 공청회는 △후보자 소견발표△학내 언론사 질의응답△정책 질의응답△마무리 발언으로 구성됐다. 후보자단은 △외대학보△외대교지△FBS 외대교육방송국△영자신문사(THE Argus)의 언론사를 시작으로, 청중 자유 질의와 사전에 온라인으로 수거한 서면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질의는 총장선출권 공약에 관한 것이었다. 후보자단은 <총출동:이번 해로 끝장내는 총장선출 공동행동>이란 기조로 총장선출권 개선을 위한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김나현 후보자는 “총장선출제도 개선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다른 구성원들과 건설적인 협의를 통해 민주적인 총장선출제도를 이뤘내겠다”며 구체적인 공약 실현 의지를 밝혔다. 또한 총장선출권 학생참여 비율의 보장에 대해선 “다른 대학의 상황을 미뤄봤을 때 평균적으로 20%의 학생참여 비율이 보장 된다”며 “교수와 동등한 비율이 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총장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8.5%의 학생참여비율을 가진다. 이어 김나현 후보자는 “총장선출에 학생들의 참여가 더해져 학내 구성원 전반을 고려한 방향으로 공약이 개선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문화센터 운영△자치 공간 방안방 운영 시간 연장△주거 공간 개선△절대평가 적용 등 다양한 공약들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제54대 총학생회장단 후보자단을 만나보다

본격적인 선거가 진행되기 전, 유세 기간을 갖고 있는 제54대 총학생회장단 후보자단을 만나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

Q1. 선출되신다면, 어떤 총학생회가 되고 싶으신가요?

우리학교 학우 여러분께서 일상의 변화와 개선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학우분들의 곁에서 소통·호흡하는 총학생회가 되고자 합니다. 현 시점에서 저희는 총학생회가 학우 한 분 한 분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지속적인 총학생회 건설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공약마련의 기준이 됐고 저희는 이러한 공약들을 바탕으로 연간 사업들을 함께 실천해 △교육△생활△인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우분들의 실제 만족도를 높이는 총학생회가 되고자 합니다.

Q2. 제시한 다양한 공약 중 가장 최우선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 인가요?

‘총출동’, 즉 이번 해로 끝장내는 총장선출권 공동행동입니다. 특히 총장선출권은 중요한 의제이므로 이를 현재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학내 의사결정 구조의 개선도 도모해보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권리 분야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인권 분야의 징계위원회△생활 분야의 식당 운영위원회 및 공간조성운영위원회 등을 설치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시스템 개선에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이는 사한부 학생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의지를 담은 공약입니다. 해당 공약들의 성과가 가시화된다면, 차후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Q3. 지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부터 학생들의 총장선출권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해당 공약과 관련해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에 차기 총장 선거가 이뤄져 다음 해엔 총장선출권이 구체적으로 제도화돼야 합니다. 이에 최근 민주적 총장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발족되는 등 학내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당선된다면 저희는 확실한 결과물을 도출하고자 할 것입니다. 저희는 △공대위 적극 참여△총장선출제도개선위원회 발족△학생 참여 확보를 통해 총장선출권 보장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총장선출제도 개선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행동이든 감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직선제를 요구하는 동시에 학생 참여 비율 또한 최대한 확보할 것입니다. 이어 총장선출 과정의 전 과정을 전체 공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차후에 정책 평가단 등 공약 심의 기구가 마련된다면 여기에도 당연히 학생 참여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는 궁극적으로 총장 선출 과정에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내 구성원이 활발하고 건설적인 담론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Q4. 교육 권리 공약 중 수강 신청 제도를 개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구상하시고 있나요?

강의 매매 행위는 명백한 교칙 위반으로 징계 사유이지만, 사실상 이를 적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대학에선 더 원활한 수강 신청을 위해 ‘취소 지연제’나 ‘대기 순번제’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의 매매를 포함한 수강 신청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대학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다른 대학의 사례를 참고하고 우리 학교의 상황을 고려해 조금 더 편리하고 공정한 수강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시스템 도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최대한 원하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효율적인 수강 신청 제도 개선을 포함한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강의 개설에 대한 학교 당국의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단기적인 문제 해결과 함께, 학우분들의 강의 선택권의 보장방안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고 학교에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Q5. 현재 CORE 사업 종료로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융합 전공 수업 종류가 적어 선택지가 좁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신가요?

CORE 사업으로 인해 신설된 융합 전공은 △언어와공학△세계문화예술경영△디지털인문학국학이 있습니다. 각 전공마다 3개 혹은 4개의 학문이 융합돼 있는데, 이 특성을 살려 연계기초 과목 혹은 교차 수강 가능 과목의 수를 늘리는 것이 단기적인 개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연계전공 과목의 증설이 이뤄져야 근본적인 문제점의 해결이 가능합니다. 각 전공마다 이수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학생들의 수강 희망 과목을 제대로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인원과 수요에 맞게 강의가 개설돼야 합니다. 다만 현재 이를 제대로 실현할 융합 전공의 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총학생회 차원에서 융합전공 이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Q6. 현재 우리학교는 이미 ‘등록금 분할 납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 권리 공약 중 ‘등록 금 분할 납부제’는 현 제도와 어떤 차별성을

갖나요?

현재 학교에선 3회에 나눠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정규 등록금 뿐만이 아닙니다. 1학점 당 8만 원에 가까운 계절학기 수업료와 기숙사비 또한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대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저희는 정규 등록금뿐만 아니라 계절학기 수업료와 기숙사비와 같은 여타 납부 비용들 또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확장해나가고자 합니다.

Q7. 학생자치 역량 강화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학생회가 민주적인 공동체로서 모든 학우를 아우르기 위해선 사실상 단위 대표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에 저희는 각 단위 대표자가 학생 사회 현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신 뒤 활발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총학생회장단과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으로 구성된 의결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의 정기 회의에 학부 및 과 학생회장도 자유롭게 참석해 논의 과정을 참관하도록 하는 ‘옵저버 제도’를 공식화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총학생회장단이 직접 회의에 찾아가 주요 안전에 대해 설명하고 단과 대학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의제에 대해 소개하는 가이드 문서를 총학생회 주도로 제작 및 배포할 예정입니다. 학생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엔 안전에 대한 학우 분들의 이해와 공감을 충분히 얻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겠습니다.

Q8. 지난 서울캠퍼스 하반기 정기총회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된 바 있는데요, 학우들의 학생자치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이끌어내실 계획인가요?

우선 학생사회에 대한 관심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총학생회 ‘푸름’의 당선△5년 만에 성사된 지난해 상반기 정기 학생총회 △지난해 하반기 정기 학생총회△이번 해 상반기 정기총회 등이 증명합니다. 비록 이번 해 하반기 정기 학생총회는 성사되지 않았으나, 갑작스런 악천후의 영향을 고려하면 ‘학생사회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 축소’라는 맥락으로 이해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학교 학생 사회에서 정기총회가 갖는 의미와 그 영향력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총회는 매 학기마다 정기적으로 진행돼 왔으나, 의무적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의성 있고 중요한 안전을 논의하기 위해 총회를 개최하기 보단 총회를 위해 안전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들도 빈번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지난해 변경된 회칙에 따라 학생총회의 정기성이 폐지된 점을 고려해 정기총회 대신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필요성과 시의성을 고려해 학생총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또한 학생 사회의 수요를 고려한 접근을 통해 학생 자치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온·오프라인을 막론한 전문 홍보 활동 또한 개시할 예정입니다.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학우들에게 학내 현안을 쉽게 설명하는 게시물을 상시로 올릴 예정이며 리플렛이나 신문 형식의 소식지를 주기적으로 발간해 학우 여러분을 찾아낼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방안들로 학우분들께 먼저 다가가며 소통함으로써 학생 자치에 대한 관심을 더욱 이끌어내겠습니다.



स्वतंत्रता की घोषणा (1 मार्च 1919)

기미독립선언서 - 힂디어 번역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 외대학보 공동기획



번역
김용정
인도연구소 HK연구교수

감수
Om Nath Bimali
우리학교 인도어과 교수

हम यहाँ विधेक् कोरिया की स्वतंत्रता एवं कोरियाई जनता की स्वधीनता की घोषणा करते हैं। हम यह घोषणा मन्वीय समानता के सिद्धांत की अभिव्यक्ति के लिए किंव के राष्ट्रों के समक्ष करते हैं। हम इस घोषणा को अपने लोगों के आत्मसंरक्षण संबंधी न्यायपूर्ण अधिकार के सत्त संरक्षण के लिए अपने भावी पीढ़ि को हस्तांतरित करते हैं। हम यह घोषणा अपने पाँच सह्र वर्ष के इतिहास को सहाय बना करके, दो करोड़ संयुक्त लोगों के नाम पर, अपने लोगों की अनक्त, स्थायी एवं अबाधित प्राति सुनिश्चित करने के लिए, और मन्वीय आत्मविवेक से प्रेरित होकर संचालित वैश्विक व्यवस्था के पुनर्निर्माणार्थ प्रचलित आंदोलन में सम्मिलित होने के लिए करते हैं। यह घोषणा दैवीय आज्ञा, समय की महान प्रवृति एवं समग्र मानव जाति के सहप्रतिवत् के सिद्धांत की समुचित अभिव्यक्ति के आधार पर प्रवृत्त है। संसार की कोई शक्ति इसे रोक या दबा नहीं सकती।

हज़ारों वर्षों के इतिहास में प्रथम बार फिखे इस वर्षों से विश्वेशी तत्त्व के द्वारा प्रस्त द्धन, निरंकुशता एवं आक्रमता, जो पुराने ज़माने के अक्षेप हैं, के द्वारा हम लोगों को पीड़ित होना पड़ा है। हमारे जीवन संबंधी अधिकार को कितना लूटा गया, हमारी आध्यात्मिक प्राति को कितना अरुद्ध किया गया, हमारे सम्मान और प्रतिष्ठा को कितना कुचला गया, और अपनी मूल दृष्टि के साथ संसार की सांस्कृतिक प्राति एवं स्वतात्मकता को अवदान करने के हमारे चितने अस्सरो को नष्ट कर दिया गया।

यदिहमें दुनिया को अपने अतीत के दुखों से अक्मत बनाना है, अपने कर्मान कष्टों से खुद को बचना है, भविष्य के खतरों को हटाना है, अपनी राष्ट्रीय प्रतिष्ठा और सांभ्रांता को बढाना है, प्रत्येक नागरिक के चरित्र का उन्नत करना है, अपने बेटे-बेटियों को शर्मिन्दा की विरसत से बचाना है, अपनी भावी संततियों के लिए एक संपूर्ण एवं खुशहाल जीवन अक्मत बनाना है, तो हमारा प्रथम अविहर्त्य कार्य लोगों की स्वतंत्रता सुरक्षित बनाना है। आज दो करोड़ हृदय इस लक्ष्य के प्रति समर्पित हैं, और मन्वीय प्रकृति तथा समय की भावना न्याय की शृंखलाओं तथा नैतिक विधियों को साथ लेकर इसमें हमारी सहायता कर रही है। अब कोई बाधा इसी शक्तिशाली नहीं है जो हमें तोड़ सके, कोई लक्ष्य ऐसा नहीं है जो अग्रस्य हो।

हमारा उद्देश्य यहाँ सिर्फ सन् 1876 की मैत्री संधि के बाद उनके द्वारा किए गए अनेक उदात्त सहप्रति विंदुओं का उल्लंघन करने के लिए जापान पर दोषारोपण करना नहीं है, और न ही हमारा लक्ष्य यहाँ उसकी बेईमानदारी और निष्ठामूल्यता के लिए जापान की भर्त्सना करना है। सीधी सी बात यह है कि उनके मुख्यों ने अपनी वक्षालों में और उनके राजनेताओं ने अपने व्यवहारों में हमारे सभ्य लोगों को बर्बर माना है, वे मात्र हमारे ऊपर क्रिय प्राप्त करके विवेता होने का सुख लेने की लाक्षा में रहे, उन्होंने हमारे समाज की चिरंतन परंपरा के प्रति अनाद्व प्रदर्शित किया वस्तुतः आत्मनिर्दिक्षण एवं आत्ममनीनिकर्ण का आग्रह हमें दूसरों में शिद्रान्वेषण का समय नहीं देता। हम कर्मान समय की लक्षितियों को

दूर करने के लिए तेज़ी से काम कर रहे हैं, अब हमारे पास अतीत के लिए, जो चला गया, उसके लिए रोने का अक्सर नहीं है। आज हमारा गंभीर दायिक् मात्र आत्म-पुनर्निर्माण है, दूसरों का ध्वंस करना नहीं है। हमारा काम अपने अक्म की पुकार को सुनकर स्वयं के नवीन भाग्य का प्रर्कन करना है, न कि अतीत विरसक क्षणिक भावनाओं व आक्रोश से प्रभावित होकर दूसरों से घृणा करना या उनका तिस्कार करना। हमारा ध्येय आज की उन अप्राकृतिक, तर्कविहीन एवं दुस्स्थापित परिस्थितियों का संशोधन व सुधार करना है, जिनकी सृजना सत्तलिसु व लोकैषणाक्षण जापानी राजनेताओं द्वारा की गई थी, उन राजनेताओं के द्वारा जो पुराने विचारों व पुरानी ऊर्जा से ग्रस्त थे। हमारा लक्ष्य ऐसी परिस्थितियों की पुनःप्रतिष्ठान्ता करना है जो प्राकृतिक तथा तर्कसंगत सिद्धांतों के साथ समसत्ता में रहें। हमारी भावनाओं के किरुद्ध जो हमारे राज्य पर नियंत्रण कर लिया गया, उसके परिणाम की परीक्षा करें। हमारे साथ अन्याय एवं असमानता का बलात्त किया गया, हम पर वस्नकारी अत्याचार किया गया, हमारे किरुद्ध काल्पनिक व मिथ्यापूर्ण ऑक्डे प्रस्तुत किए गए। इसने हमारे लोगों के अंदर आक्रोश को जन्म दिया। यह ऐसा आक्रोश है जो विपरीत भावनाओं वाली दो जनता के समंजस्य पूर्ण अस्तित्व को सदा के लिए नकाशता है। यह आक्रोश और गहरा होता जा रहा है। कौन नहीं देख सकता कि कितना से बच्चे का और दो जनताओं के बीच पारस्परिक मंगल भावों के निमंत्रण का सरलतम उपाय अतीत की वृत्तियों के समाधानार्थ प्रवृद्ध व साहसिक क्रयम उठाना और सभी समक्ष व सहप्रभृति पर आधारित मैत्री संबंधों का विकास करना है। दो करोड़ आक्रोशित लोगों को शक्तिप्रयोग द्वारा बाँधा जाएगा तो इसने न केवल सुदूर पूर्व में शांति सदा के लिए भंग हो जाएगी, बल्कि इससे जापान के प्रति चालीस करोड़ चीनी जनता के मन का सतत प्रर्धमान भय व शंका का भाव और गहराया, उन जनता के मन का भाव जिस पर सुदूर पूर्व की शांति सबसे अधिक निर्भर करती है। यह स्थिति निश्चित रूप से समग्र सुदूर पूर्ववर्ती क्षेत्र के आपसी विनाश की वसदी को आमंत्रित करेगी।

इसलिए कोरिया की स्वतंत्रता एक ऐसा आवश्यक क्रयम है जिससे हमारे लोगों को जीवन व समृद्धि की ओर बढ़ने की उचित प्रेरणा मिलेगी। इसके साथ ही इससे जापान को दुष्ट मार्ग से बचने और सुदूर पूर्व के नेता के रूप में अपने गंभीर दायिक् को निभाने का सामर्थ्य मिलेगा। और, इससे चीन को प्रत्येक प्रकार की चिंता व भय से मुक्ति मिलेगी। इसके अलावा हमारी इस क्रिया को सुदूर पूर्व और किंव में शांति की स्थापना के लिए और समग्र मानवता की खुशी का संकर्धन करने के लिए एक आवश्यक क्रयम माना जा रहा है।

इसलिए यह केवल भावना का एक प्रवाह मात्र कैसे हो सकता है! देखो कि एक नई दुनिया हमारी आँखों के सामने प्रस्त होती है। वस्नकारी शक्ति का समय चला गया है और अब तर्क व सत्यनिष्ठा का समय आ गया है। विगत शताब्दियों की अवधि में पोषित व परिष्कृत हुए नैतिक नियम व मानवता की चेत्ता अब मन्वीय गतिविधियों के समक्ष नई सभ्यता का प्रकाश करने वाली है। पृथ्वी पर नए वसंत का आगमन प्राणि मात्र के पुनरुद्धार का आह्वान करता

है। यदि अतीत के तत्त्वों ने बड़ी ठंड और सर्दी की बर्क की तरह लोगों को घुंन्त दी है तो आज के समय की तत्त्व पौष्टिक वयार व वसंती ताप लेकर आई है। आज हम अपने आप को पुनःस्थापना और पुनरुद्धार के इस युग में पाते हैं। आज हम दुनिया की बक्ली हुई धारा में चल रहे हैं। पुनरपि अपने कर्तव्य को पूरा करने में न हमें कोई संकोच है और न किसी प्रकार का भय है। हमें स्वाधीनता व स्वतंत्रता से संबंधित अपने विशिष्ट अधिकारों को सुरक्षित रखना है।

हमें एक समग्रतापूर्ण जीवन से संबंधित प्रसाद के अन्वेषण में रहना है। वसंत से भरी आज की दुनिया में यह हमारा पक्न कर्तव्य है कि हम अपनी मौलिक व संरन्तात्मक ऊर्जा का प्रदर्शन करें और अपने लोगों की आध्यात्मिक गरिमा को सक्ता करें। अब हम इन उद्देश्यों के प्रति सज्ज हैं। मानव जाति की भावना हमारे साथ है। सत्य हमारे साथ आगे बढ़ रहा है। युवधो व वृद्धो, उठो और अपने क्रियम स्थलों से बाहर आओ आओ, हम प्रकृति के साथ तात्म्य वनात्तर पुनरुज्जीव के अपने कार्य को पूरा करें। हमारे पूर्वजों की चेत्ताएँ अंदर से हमारी रखा कर रही हैं और समस्त जात् की प्रवृत्ति बाहर सहस्रारी सहायता कर रही है। इस कार्य का आरंभ ही इसकी सफलता है। हमारे सामने प्रकाश है। आइए, उस प्रकाश की ओर बढ़ते हैं।

तीन सिद्धांतों की प्रतिष्ठा
एक, यह हमारे लोगों की प्रार्थना पर जीवन, मानवता, सत्यनिष्ठा, गरिमा व आदर के साथ हमारा वादा है। हम अपनी स्वाधीनता की मनोवृत्ति का प्रदर्शन करें। कोई भी दूसरों का तिस्कार की मनोवृत्ति न अपनाए।

एक, प्रत्येक व्यक्ति अंत तक हमारे लोगों की न्यायोचित कामनाओं व आकांक्षाओं का प्रर्शन करें।

एक, हमारे सभी कर्म सुव्यवस्थित एवं उदात्त हों ताकि हमारी अभीसाएँ और हमारी अभिवृत्तियाँ आस्वयोग्य व स्पष्ट हों।

कोरिया राज्य के 425वें वर्ष (सन् 1919) के मार्च का पहला दिन।

कोरियाई जनता के प्रतिनिधि :				
सोन व्यङ् ही	गिल सन जू	ईफिलजू	बैक योङ सङ् रक्न	गिम वानग्यु
गिम व्यङ् जो	गिम छङ् जुन	रक्न दोङ् जीन	रक्न व्यङ् दक	ना योङ् हक्न
ना झ्न ह्वा	याङ् सुनबैक	याङ् हन मुक	यु यदै	ई गव सङ्
ई म्यङ् र्योङ् कक जुन सङ्	ई सङ् हन कक ही दो	ई जोङ् हन कक दोङ् वान जङ् चुन सु होङ् गी	ई जोङ् ईल शिन होङ् शिङ् छोईसङ् मो	ईम ये हक्न शिनसक गु छोईरिन

파란바다를 가진 빛나는 섬,그리스 산토리니

유럽 남동부 발칸반도 남단에 위치해 있는 그리스는 유럽과 지중해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 겨울엔 온화하고 여름엔 덥고 건조하다. 그리스는 산과 섬으로 이뤄져 있으며, 오랫동안 해외에서 이주한 그리스인의 수와 그리스 국내 인구가 비슷하다. 수도 아테네는 그리스의 △정치△종교△문화의 중심지이며, 전체 인구의 삼분의 일이 이곳에 살고 있다. 세계 문화유산 1호인 아테네 아크로폴리스는 도시 국가 폴리스에 있는 높은 언덕을 가리키는 것으로, 수호신을 모시는 신전과 군사적 요충지로도 사용됐다. 고대 민주주의 요람이라 불리는 그리스, 그 중에서도 ‘빛에 씻긴 섬’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산토리니에 대해 알아보자.



▲산토리니 이아의 전경

하얀 건축물과 파란 하늘이 어우러진 산토리니는 수천 년 전의 화산폭발로 지금의 초승달 모양이 됐다. 섬을 가라앉게 한 화산은 신화의 원천이 됐는데, 그리스인들은 산토리니를 전설 속에 잃어버린 대륙 ‘아틀란티스’로 믿고 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산토리니 북쪽 끝 ‘이아’는 산토리니의 환상적인 풍경으로 유명하다. 화산이 터져 절벽이 된 가파른 땅에 하얗게 페인트칠 된 가옥 수백 개가 붙어있다. 절벽을 따라 양동맞은 기념품 가게와 카페들이 즐비해 있고 상징적인 풍차와 십자가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전망대에서선 산토리니 전경이 한눈에 보인다.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산토리니의 변화가 ‘파라’다. 파라 테토코폴로 광장 주변엔 그리스 전통식당인 타버너나(taverna)와 가게들이 몰려 있고, 아침에 거리를 나서면 주민들이 잣잡은 생선을 내다 판다. 파라는 전 세계 관광객이 몰려 들기에 이곳에선 정겨운 사람 냄새를 느낄 수 있다. 이아에서 파라로 이어지는 트레킹은 완만한 코스로 구성돼 있으며, 약 2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파라의 구항구로 향하는 경로에선 당나귀로 이동하거나 케이블카를 탑승할 수 있다.

풍차가 도는 어촌마을이나 누드비치 등 이색 해변을 경험하고 싶다면 에게해의 쌍두마차 섬인 미코노스를 관광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다. 미코노스 180도 선셋바는 1인당 10유로의 입장료를 내고 입장가능하며, 돌담과 함께 일몰을 구경할 수 있는 명소이다. 또한, 미코노스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만복소리>란 책에 배경으로 담기기도 했다.

산토리니로 가면서 아테네를 거치는 게 일반적이다. 아테네에서 산토리니까지는 항공기와 고속 페리를 통해 다닐 수 있다. 신항구인 아티니오스 항구에서 파라까진 버스를 통해, 파라 내에서도 버스를 통해 이동할 수 있다. 현지에선 경차 등의 대여가 가능하다. 다른 경로를 찾고 싶다면 산토리니와 미코노스간 오가는 페리를 타면 된다. 자연과 인공물의 조화로 많은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산토리니, 마음의 휴식을 얻고 싶다면 이곳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조미경 기자 99migyong@hufs.ac.kr

사진으로보는 기록과 외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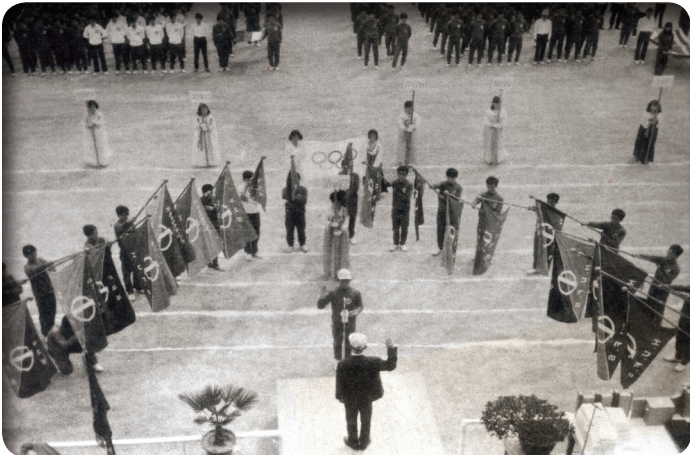
HUFS Global Archives ㉔



▲제2회 모의올림픽 육상 경기



▲제5회 모의올림픽 입장식



▲제2회 모의올림픽 선수 선수

1967년에 시작된 모의올림픽은 다양한 외국어 학과를 가진 우리학교만이 기획할 수 있는, 우리학교의 정체성과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학생 행사다. 학생들이 각 학과의 명예를 걸고 체력 단련과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 체육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는 다른 대학의 체전 행사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우리학교를 하나의 작은 지구로 상징하고 체육 활동을 통해 ‘국제평화의 증진’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온몸으로 체득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와 차이가 있다.

1970년대 활발하게 운영되면서 길게는 일주일 넘는 기간 동안 행사가 진행되는 등 좁은 캠퍼스임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진행됐던 우리학교만의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글로벌 캠퍼스의 확장과 더불어 각 단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체육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법정 체육대회△사경정 체육대회△사범 체육대회△문리학장배 체육대회 등 각 단과대별 체육대회를 비롯해 비둘기 체전과 같은 독립적인 체육 행사가 빈번하게 열렸다. 이에 따라 1982년 제15회 모의올림픽 부터는 최초의 취지를 살려 어학계열 학과만 참여하며 축소됐다. 1987년부터는 우리학교 구성원 전부 참여하는 통합 외문체전이 20년 만에 부활하면서 모의올림픽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본 기록물은 우리학교 미니 올림픽이라고 불렸던 독특한 형태의 체육 행사인 모의올림픽의 기록물이다. 이는 우리학교의 글로벌 정신과 평화를 추구하는 교육 이념을 잘 보여주는 학생 활동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록물은 우리학교 역사관 기획 전시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 및 사진 제공 : 역사관

우리학교 융합전공, 배경과 실태에 대해

융합전공이란 2개 이상의 전공을 융합해 이수하는 제도다. 이 전공제도는 2000년대 후반에 대학가에 새로이 등장했다. 융합전공은 학문 간 융합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창의적 인재로 길러내고자 신설됐다. 한편, 이 제도는 여러 학문을 통합해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자 만들어졌지만, 학생들은 이 제도의 여러 방면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 우리학교 측의 융합전공에 대한 홍보와 자세한 설명이 부족해 학생들이 제대로 알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융합전공을 하고 있더라도 수업 커리큘럼이 부실하다거나 수업 종류가 적기에 선택지가 좁다는 단점도 지적했다. 이처럼 학생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융합전공의 배경과 융합전공에 대한 학생·학교 측의 의견을 알아봤다.

◆융합전공은 무엇인가

융합전공이란 2000년대 후반부터 학문 간 경계를 허문 융합인재를 양성하고자 대학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전공제도다. 다수의 대학이 융합전공을 도입한 배경엔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이하 ACE사업)’이 있다. ACE사업은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학부교육 선진 모델 창출을 목표로 한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사업이다. ACE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은 최장 4년간 매해 약 20억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교양기초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융합교육과정 개발 여부가 ACE사업 지원 대상 선정 평가의 주요 요인이 되며 각 대학은 각종 융합전공과목을 개설하게 됐다.

2014년 이후 ACE사업 지원 대상 선정 평가에서의 융합전공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2015년 12월 교육부의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이하 CORE사업)’이 융합전공과목을 다시 독려했다. CORE사업은 기초학문인 인문학을 보호·육성해 사회 수요에 맞는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고자 인문계열 학과와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사업이다. 전국 4년제 일반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인문학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통합적으로 이를 지원한다. 이 사업엔 약 559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됐다.

우리학교는 CORE사업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인문기반 융합전공 교육 모델의 기본원칙을 따르기 위해 어문학 계열학과로 이뤄진 단과대학의 주관으로 △공학△경영학△사회과학△예술 관련 전공 등과 결합한 융합 교육과정을 개설했고 △언어와 공학 융합전공△세계문화예술경영 융합전공△디지털인문학한국학 융합전공을 신설했다. 또한 융합전공 자체 개설과목과 참여 학과의 전공과목을 조합해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이를 이수한 학생에게 융합전공 학위를 수여한다. 한편 우리학교는 CORE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융합전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운영전담 연구원 및 행정요원 등을 지원받았다.

◆우리학교 융합전공 현황

우리학교에선 현재 일반융합전공으로 9개의 전공, 혁신융합전공으로 2개의 전공이 개설된 상태다. 융합전공은 이중전공으로만 이수 가능하지만 이 중 국가리더전공는 이중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최근 폐지된 광역특화전공과 정보·기록학전공은 기존 신청자만 이수 가능하며 글로벌캠퍼스에서 폐지된 동북아외교통상전공은 서울캠퍼스에서 수강이 가능하다.

구분	글로벌캠퍼스 개설 융합전공	서울캠퍼스 개설 융합전공
혁신융합전공	지역경제개발협력전공,보험계리학전공	
일반융합전공	△EU전공 △국가리더전공 △문화콘텐츠학전공 △ 세계문화예술경영전공 △ 융복합소프트웨어전공	△ EU전공 △브릭스전공 △ 국가리더전공 △ 동북아외교통상전공 △ 문화콘텐츠학전공 △ 디지털인문학한국학전공 △ 세계문화예술경영전공 △ 언어와공학전공 △ 융복합소프트웨어전공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통번역전공

▲표 : 우리학교에 개설된 융합전공 과목들

우리학교는 이번 해 2월까지 CORE사업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전공에 대한 국고지원을 받았으며 이후 5년간 사업으로 인해 개설된 교육과정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졌다. 또한 국고지원금을 사용하는 공식적인 사업기간 중의 교과목 및 교재 개발 등이 완료돼 새로운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2015년 CORE사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융합전공과목들

우리학교엔 9개의 일반융합전공과 2개의 핵심융합전공과목 개설돼 있어

학생들은 정보 습득 어려움과 강의 수 부족 등의 불만을 말해

데 이를 통해 공신력 있는 정보를 얻기엔 힘들다”며 “학교 측에 융합소프트전공 내에 인공지능 트랙을 건의했으나 다음 해에 융합전공으로 신설될 예정이란 답변만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수업을 2번 들은 거로 표시돼 있을 정도로 어떤 수업이 융합전공으로 인정되는지 잘 모른다”며 “학생들이 질문할 창구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리더전공을 이수 중인 신옥환(인문·철학 18) 씨는 “융합전공에서 계절학기로 개설되는 과목 수가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보안을 요구했다. 동북아전공을 이수 중인 김현진(통번역·중국어 18) 씨는 “이번 해부터 동북아외교통상전공이 개편돼 5개 학부의 수업을 들을 수 있지만, 정식으로 학과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지 않아 융합전공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찾기 힘들다”는 불편함을 호소했다. 또한 “융합전공 자체를 이수하는 학생이 많지 않아 개설되는 수업 자체도 적고 개설되더라도 폐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점보다 불편한 점이 더 커 이중전공을 바꿀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커리큘럼을 세우고 융합전공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학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표했다.

윤병호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팀장은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불만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CORE사업으로 신설된 3개 융합전공의 경우 기존 융합전공에 비해 자체적으로 개설하는 교과목의 강좌 수가 많은 편”이라며 “42학점 이상을 수강해야 하는 이중전공 이수자가 가능하도록 충분히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해당 융합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길 원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융합전공은 기본적으로 이중전공으로 이수하도록 설계된 것”이라며 “융합전공을 운영하는 주관학과와 전공 주임교수 차원에서도 이수 학생에 대한 적절한 수강관리를 위해 부전공 이수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른 학교의 융합전공 사례

현재 경희대학교엔 5개의 융합전공이 개설돼 있으며 학생들은 기존 연계전공과는 달리 융합전공을 제1전공으로 선택해 졸업할 수 있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현재 26개의 융합전공이 개설돼 있다. 융합전공과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선 그 과에 직접 연락하거나 ‘콘텐츠 담당부서’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국민대학교는 인문사회계열과 이공계열을 융합해 3~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공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단독학부인 인문기술융합학부에서 담당한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2000년부터 시작해 현재 15개의 융합전공이 ‘연계전공’이란 이름으로 개설된 상태다. 또한 연계전공 홈페이지를 통해 전공별 자세한 설명을 보고 운영위원을 알 수 있으며 연계전공 사무실은 따로 지정돼 있다. 한편 이화여자대학교는 4개의 융합전공을 신설했고 학생들은 융합전공을 이중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있다. 다만 일부 교과목의 경우 해당 융합전공의 사정에 따라 극히 예외적으로 과목명이 변경되거나 폐지됐을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수정 없이 커리큘럼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정규교과과정 운영과 연계해 사업 기간 중 국고지원으로 진행됐던 △특강△세미나△워크숍 △현장체험 프로그램△인턴십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은 사업 기간 종료와 함께 중단된 상태다.

◆이수학생들의 불만사항과 학교 측 응답

현재 우리학교 융합전공을 둘러싼 학생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융합 소프트웨어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정우영(통번역·중국어 15) 씨는 “융합전공 대부분의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가 매우 적기에 정보를 찾기 위해 선배나 우리학교 학생 커뮤니티 사이트인 에브리타임을 이용하게 되는

철도 파업 종료, 풀리지 않은 갈등

지난달 20일 오전 9시, 철도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노조는 한국 철도공사 코레일(이하 사측)과 교섭을 통해 이틀간의 밤샘 협상 후 25일 오전 잠정합의를 맺었다. 파업은 철회됐지만 파업 기간 열차 운행률은 평소의 70% 대를 맴돌며 이용객에게 불편을 남겼다.

혼잡한 열차와 길어진 운행간격으로 철도를 통한 교통 이용이 불편함을 초래했던 가운데 △파업으로 치달게 된 원인△노조의 요구사항과 사측의 입장△잠정합의 내용과 노조 내부 갈등△파업이 끝난 뒤 상황 등에 대해 살펴보자.

◆3년 만의 철도 파업, 그 원인은?

이번 철도 파업은 2016년 9월 총 74일간 장기간 이어졌던 파업 이후 3년 만에 진행됐다. 노조는 이번 파업을 통해 임금 인상과 인력 총원 등을 요구했다. 현재 철도 노조의 근로시간은 주당 39.3시간이다. 이를 31시간으로 단축하고자 노조는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을 위한 인력 4654명 증원과 4% 대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이때 4조 2교대는 4개조 중 한 번에 2조가 하루 24시간 중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형태다.

노조가 총파업을 감행하게 된 원인엔 사측과의 갈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먼저 지난달 19일 노조와 사측은 4조 2교대 전환을 위해 인력 총원 규모 등에 대한 교섭을 했지만 결렬된 바 있다. 당시 노조는 4654명의 증원을 요구했고 사측은 1865명을 제안했다. 또한 노조는 자회사 소속 승무원을 본사가 직접 고용하고 자회사 직원 임금을 본사 직원의 80% 수준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사측은 “공기업 임금 가이드라인에 어긋난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지난해 6월 노사·전문가 중앙협의기구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근로자 임금의 80% 수준까지 임금을 인상해 지급하고 이를 위해 원화청협 의회를 구성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사측은 지난 1년 반 동안 이러한 권고를 지키지 않았다.

◆잠정합의와 노조 내부 갈등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은 노조가 사측과 잠정합의를 맺으며 5일 만에 철회됐다. 이에 노조는 빠른 시일 내에 조합원 총회를 열고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이다. 잠정합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9년도 임금 전년 대비 1.8% 인상△인력 총원에 대해 노사와 국토부가 협의△KTX-SRT 고속철도 통합 운영 방안 노사 공동 건의△자회사 직원의 임금 수준 개선 건의△코레일 관광개발 임금·승진 체계 우선 논의 등이다. 하지만 노사엔 아직 합의의 끝내지 못한 사항들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노조는 인력총원과 관련해 국토부와 더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파업은 끝났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 사측은 다음 해에 4조 2교대제로 전환하기 위해 1865명의 신규 총원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노조는 4654명 증원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토부는 노조의 입장에 부정적이다. 더불어 국토부는 노사가 인력 증원을 요구하기보다 인력 재배치를 하는 등 내부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1일,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대책회의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추가 수익 창출이나 비용절감 없이 일시

에 인력을 증원하는 것엔 영업적자 누적 등 재무여건을 악화시키고 운임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노조 내부에선 이번 합의가 총파업을 한 것에 비해 소득이 없다는 불만도 크다. 잠정합의안에 포함된 1.8% 임금 인상은 지난해 정부가 정한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의 총인건비 인상을 과 같다. 특별히 파업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로 보기 어려운 대목인 것이다. 그런데다가 이 정도 수치의 임금 인상은 매해 노사협약을 통해 이뤄지



▲철도 파업 당시 지하철 내부 모습 (출처: 연합뉴스)

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도 노사는 전년 총액 대비 임금을 2.6% 인상하기로 한 바 있다. 덧붙여 임금 인상 외의 안전도 건의를 하겠다는 정도에 그쳤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반면 긍정적인 평가의 목소리도 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인력 증원과 관련해 국토부를 협상자리로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측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국토부와와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하다. 정부는 기존의 3조 2교대 근무 시에도 사원이 주 39시간을 일하는 데, 4조 2교대 근무제로 전환되면 사원의 근로시간이 불과 약 37시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를 위해 4000여 명을 총원하면 매해 4000억 원의 세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파업 첫날 김경욱 국토부 제2차관(이하 김 제2차관)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김 제2차관은 “국민에게 부담이 되면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코레일의

지난해 영업적자가 900억 원인데, 1865명만 증원해도 매해 3000억 원 적자가 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시작부터 노조 내부 반응이 엇갈리기도 했다. 지난달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됐던 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 비율은 53.9%로 역대 두 번째로 낮았으며 파업 참여율은 21일 오전 11시 기준 28.9%로 지난 2016년 총파업 당시 이틀째 참여율 36.7%에 비해 저조했다. 이에 노조 내부에선 ‘명분도 효과도 없는 파업’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로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엔 이러한 불만이 담긴 댓글들이 올라와 있다. 일부 조합원은 “지금 노조는 명분만 찾고 실리는 하나도 생각 안 하는 정치 노조”라며 노조 내부를 향한 날 선 시선을 보였다.

노조에서 요구한 ‘자회사 직원 본사 고용’에 대해서도 젊은 노조원 사이에선 입장이 갈리고 있다. 코레일 공개채용(이하 공채)은 공기업 중에서도 높은 경쟁률로 유명하다. 이에 공채를 통해 어렵게 본사에 입사한 일부 노조원들 사이에서 파업의 요구사항 중 하나가 ‘자회사 직원들의 본사 고용’이란 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종료된 파업, 남겨진 것들

일각에선 잠정합의안 내용에 큰 소득 없이 파업이 끝나버렸다는 평을 하며 지난 2016년 9월에 74일간 진행된 파업과 비교했다. 또 다른 한편에선 수도권에서 대입 시험을 봐야 하는 수험생들의 불편과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같은 국가적 행사 기간과 겹쳐 노조가 파업이 장기화되는 것에 심적 부담을 가졌을 수 있다는 관측하고 있다. 이번 타결에 대해 정부가 급한 불은 꺼졌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파업이 장기화됐을 경우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수출업계와 일부 건설업에도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이제 막 시행되는 시점에 근무 시간 단축을 위해 4654명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철도노조 측 입장은 시민들의 공감을 사지 못했으며 이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했다는 여론이 크다. 그뿐만 아니라 노조가 파업을 하는 동안 출퇴근길 혼잡을 겪어야 했던 수도권 직장인들의 원성과 수험생들의 대학 수시와 논술고사 기간과 맞물려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컸던 상황 역시 이러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앞으로 노조의 행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될 전망이다.

허지나 기자 99_jina@hufs.ac.kr

우리학교
동아리를
찾아라!

힙 소 사 이 어 티

뮤지컬동아리 ‘라온’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엔 유일한 중앙뮤지컬동아리 ‘라온’이 있다. 라온은 지난 9월 7기 ‘레미제라블’ 공연에서 766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쳤으며 현재 8기 공연을 준비하며 동아리원들과 협력하고 있다. 무대의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들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라온은 △배우팀△예술팀△기획홍보팀으로 이뤄져 있으며 체계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이수민(영어영어 16) 동아리 회장을 만나 라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1. 동아리 ‘라온’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라온은 ‘즐거움’이란 의미의 순우리말입니다. 우리 동아리는 우리학교 재학생들에게 종합 예술인 뮤지컬에 쉽게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 연습해 매학기가 시작되는 3월과 9월에 정기 공연을 선보입니다. 또한 정기 공연을 기준으로 기수가 바뀌며 현재는 8기 단원들이 다음 해 3월에 있을 공연을 준비하며 활동 중입니다.

Q2. 이 동아리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뮤지컬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입학했을 당시 라온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동아리의 성장을 알게 됐고 뮤지컬 관련 학과가 없는 우리학교에서도 동아리가 질 높은 공연을 만들어내는 것을 봤습니다. 공연 하나를 올리려면 수많은 사람의 열정과 노력이 하나로 뭉

쳐져야 하는데 라온의 공연에선 그런 과정들이 눈에 또렷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열정으로 뭉뚱 뭉친 단원들과 함께 멋진 공연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후 동아리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Q3. 이 동아리에선 어떤 활동을 하나요?

우선 라온은 크게 △배우팀△예술팀△기획홍보팀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중 예술팀은 다시 △무대팀△조명팀△음향팀△의상팀으로 나뉩니다. 학기 중엔 뮤지컬의 기초를 다지는 세미나와 각자 뮤지컬의 특정 장면을 연습해 짧게 시연하는 발표회 등의 행사가 진행됩니다. 종강 후엔 본격적으로 정기 공연을 위한 준비에 돌입하는데, 배우팀은 연출부의 연출에 따라 주 4회 정도 연습을 합니다. 예술팀 중 무대팀은 △장면별로 필요한 무대 장치△소품△무대 큐시트를 만듭니다. 의상팀은 △공연 의상을 구상△의상 구매△의상 리

폼·제작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홍보팀은 △공연 포스터 제작△티켓 제작△공연 홍보 등의 업무를 진행하며 동시에 동아리 공식 SNS 관리나 단체 티 제작 등 동아리 기획·홍보에 관련된 일을 담당합니다.

Q4.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저는 7기부터 동아리 활동에 참여해 현재 8기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 무더운 여름에 두세 달간 거의 매일같이 학교에 나와 연습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인문관 대강당에서 연습했던 날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침 9시부터 학교에 모여 무대 장치들을 대강당으로 옮기고 실제 공연할 무대에서 처음으로 연습한 것들을 맞췄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정말 짜릿했습니다. 좁은 강의실에서만 연습하던 장면이 무대 위에서 구현되니 진짜 ‘공연’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새삼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또 막이 올라가고 관객을 만나는 그 첫 순간의



긴장감과 설렘은 공연에 참여하지 않고선 절대 느끼지 못할 값진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Q5. 활동 중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활동이다 보니 연습이 진행될수록 많이 지치고 힘듭니다. 저희는 일 년 중에 가장 덥거나 추운 방학 중에 연습합니다. 이런 환경적 요인도 체력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공연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 보는 연습을 ‘런스루’라고 하는데 런스루를 두세 번씩 하는 날이면 정말 체력이 바닥나곤 합니다.

Q6.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라온은 다음 해 3월에 있을 8기 정기 공연으로 ‘시카고’를 준비 중입니다. 11월 한 달간 스텝과 배우 세미나, 발표회 등을 진행하며 기초를 다졌고 이번 달엔 캐스팅 오디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캐스팅이 완료되면 종강 직후부터 배우들은 각자의 역할에 맞춰 연습하고 예술팀과 기획홍보팀 역시 각자의 포지션에서 작품을 만들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방학 동안 열심히 준비해 다음 해 3월에 멋진 공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하영 기자 99young@hufs.ac.kr

스크린 독과점, 작은 영화에 대한 관객의 관심이 필요한 때

지난달 21일 겨울왕국2의 개봉으로 영화계에선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다시 대두됐다. ‘영화인 대책위원회’는 영화 다양성 확보와 독과점 해소를 위해 겨울왕국2 개봉 하루 뒤인 지난달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문화체육관광부△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

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고 호소했다. 이러한 영화 독과점이 우리나라 영화 산업에서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정영권 우리학교 세계문화예술경영전공 강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정영권 세계문화예술경영전공 강사

Q1. 스크린 독과점이란 어떤 것인가요?

스크린 독과점이란 단어 그대로 한 편 혹은 몇 편의 영화가 스크린의 대다수를 독과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영화가 개봉했을 때 영화관에서 특정 영화의 상영관 차지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현상을 말합니다.

Q2. 스크린 독과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화 산업의 경우 부가시장이 협소하며 극장수익이 전체 영화 시장 규모의 약 80%에 달합니다. 이에 영화사는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스크린 수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 합니다. 이를 와이드릴리즈(wide-release) 전략이라 합니다. 흔히 ‘개봉 첫 주말에 30만 관객을 넘지 못하면 최종 100만 관객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말은 영화 업계에서 거의 공식처럼 여겨집니다. 이렇게 첫 주말 흥행이 전체 흥행수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힘이 센 배급사는 더 높은 수익 창출과 스크린 수의 확보를 위해 계열극장과 연합해 수직계열화를 이룹니다. 그 예시로 △CJ ENM△CGV△롯데엔터테인먼트△롯데시네마를 들 수 있습니다. 결국 힘이 약한 소형 배급의 영화는 대형 배급 영화에 밀려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Q3-1. 스크린 독과점은 국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스크린 독과점은 상영회수의 독점을 의미합니다. 독점이란 상품을 팔 수 있는 좌판을 독차지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일입니다. 한 편의 흥행영화가 스크린을 오래 점유하는 동안 다른 영화들은 상영의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의 대기업 중심의 멀티플렉스 탄생은 여러 개의 스크린으로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기대감을 높였으나 오히려 상영관을 한 영화에만 몰아주는 나쁜 현상을 낳았습니다.

Q3-2. 스크린 독과점으로 영화사에서 크게 피해를 본 사례가 있을까요?

스크린 독과점 피해 사례는 많습니다. 그 중 한 사례를 소개하자면 2012년에 개봉한 민병훈 감독(이하 민 감독)의 <터치>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개봉 직후 전회 상영이 아닌 교차상영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에 민 감독은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스스로 스크린을 내리고 상영을 포기했습니다.

Q4. 국내 영화끼리도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편인가요?

영화 시장에선 내수시장 수입과 극장 수입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기에 우리나라 영화들끼리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집니다. 국내 영화는 매주 개봉하기에 동시에 2편 이상 개봉되면 출혈경쟁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실제로 이번 해 3월 넷째 주엔 △<돈>△<악질경찰>△<우상>이 세 편의 영화가 비슷한 시기에 개봉해 경쟁을 벌였습니다. 세 편 모두 제작비 80억 이상 소비된 중예산 이상의 영화입니다. 그러나 <돈>은 500만 이상의 관객이 예상됐음에도 340만 관객에 그쳤고 <악질경찰>은 26만 관객, <우상>은 더 참담한 18만 관객을 동원하는데 그쳤습니다. 한마디로 ‘자살폭탄테러’의 현상이었습니다.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한 와일드릴리즈(wild-release) 전략으로 스크린 독과점 문제 발생

대기업 중심의 멀티플렉스 탄생은 상영관을 한 영화에만 몰아주는 나쁜현상 낳아

관객들의 ‘영혼 보내기 운동’등의 사회적 분위기 형성 필요

Q5. 현재 영화법 상으로 스크린 독과점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스크린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와 정부가 여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현재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배급사와 극장에선 높은 상영 점유율은 수요에 따른 공급이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객의 수요는 많은 스크린 수와 대규모 홍보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에 많은 공급(스크린 독과점)은 그만큼 수요를 창출하기에 배급사와 극장의 주장이 아예 틀린 논리의 주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6. 앞으로 스크린 독과점 해결을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크린 독과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현재 시기에선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업계에서도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선 현명한 관객들이 필요합니다.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 ‘영혼 보내기 운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화관에 가지 않고 조조시간처럼 사람이 적은 시간대나 A열 등 선호도가 낮은 좌석을 예매해 영화를 보지 않으며 관객 수를 높이는 것에 일조하는 것입니다. 영화 <김복동>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영화 <김복동>은 여성인권운동가와 평화운동가로 활동하신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일본의 사죄를 받기 위해 투쟁하신 27년간의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입니다. 수익금 전액이 위안부 문제 해결의 위해 사용된다는 소식이 전국에서 단

체관람 열풍이 불고 티켓 무료 나눔이 이뤄졌습니다. 영화 <미쓰백>의 경우에도 개봉 초기 부진한 성적을 보였으나 개봉 2주 뒤 트위터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영혼 보내기 움직임이 나타나며 박스오피스를 역주행했습니다. 그 결과 총 관객 수 72만2560명으로 손익분기점인 70만 명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박화영>, <허스토리> 등 영화들도 영혼 보내기 관람 대상이 됐습니다.

△영화제작자△배급업자△상영업자들은 모든 영화에 동일한 기회를 주지 않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는 철저한 시장논리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작은 영화를 위한 팬덤을 형성해 영화 보기 운동과



▲영화 미쓰백 포스터

영혼 보내기 운동을 하는 것은 작은 영화에도 늘 일정한 수요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상적으로만 보일 수 있으나 유럽에선 그런 관객이 늘 상존하기에 예술영화와 독립영화가 각광받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관객들이 많이 생겨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야 정부도 더 많은 지원을 하려 할 것입니다. 또한 영화업자도 영화시장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야 스크린 독과점 방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하영, [영화 배급과 흥행: 천만 영화의 흥행 공식], 아모르 문디, 2019, 77~78쪽 인용



학보는 향수를 남기고

“학보를 읽는 모든 우리학교 구성원들에게 학교 곳곳의 사건과 일들을 전달하고 그에 대해 같이 생각·행동하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 문장은 내가 외대학보 97기 수습기자 지원서에 썼던 문구다. 일 년 반 동안 나는 이 다짐을 해내기 위해 내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다. 기자로서 기사를 쓰고, 편집장으로서 신문을 만들다 보니 시간은 화살처럼 쏠살같이 흘러 어느덧 마지막 마감을 앞두게 됐다. 마지막 마음을 축하하며 나는 나 자신에게 향수를 선물했다.

나의 학보 임기는 향수와 많이 닮았다. 가장 먼저 향수의 성분을 신중히 골랐다. 매 신문 구성에 있어 회의 날엔 좋은 아이템을 선정·배치했고 마감 날엔 밤새 기사를 수정하며 학내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을 넣었다. 하지만 단언컨대 이 과정은 오로지 내가 해낸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외대 학보 기자들△크고 작은 도움을 주신 김월명 중간교수님△항상 믿고 의지했던 이준매 선생님△신문의 끝을 항상 함께했던 안홍섭 사장님△선택지 앞에 놓일 때 항상 도움을 준 정동민 선배님△크외에도 신문 완성을 함께해주신 여러 명의 조향사들이 모여 함께 매력적인 향수를 만들었다. 그리고 가장 든든하게 나의 뒤를 지켜주신 부모님, 학보 일로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준 친구들 덕에 오랜 시간 동안 향수를 만들며 힘들었던 순간에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다.

하나씩 성분을 고르다 보니 어느새 향은 만들어졌었다. 향수엔 다양한 화학 물이 섞여있고, 각각의 성분이 증발하는 속도가 다르다 보니 향수는 시간대마다 다른 향을 뿜어낸다. 그리고 이 시간대별로 나타나는 향을 △탑 노트△미들 노트△베이스 노트라고 부른다. 이 노트들은 △정기자△차장△편집장에 빔타어질 수 있다. 정기자 임기는 오렌지·자몽 향을 담아 강력한 첫인상을 주는 시트러스 향과 같다. 처음 해본 모든 활동이 새롭고 신기했으며 즐거웠다. 외대학보 기자란 이름에 마냥 취해있었던 시기였다. 차장 활동은 형용할 수 없는 쓰디쓴 향이었다. 정기자 때와는 다르게 기자 활동들이 즐겁지만은 않았고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일들이 겹치며 학보 자체를 견뎌내기가 어려웠다. 그래도 항상 첫 다짐을 생각하며 이겨내고자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편집장 직책은 머스크·파우더처럼 잔잔하면서도 진한 향을 뿜는 오리엔탈 향이었다. 편집장으로 일하면서 겪을 수 있었던 모든 일들을 겪으며 나만의 성숙된 향을 지니게 됐다. 이 세 향 중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향이 없다.

향수의 향을 맡을 땐 그 자체의 느낌도 떠오르지만 그 향으로 인해 몇몇의 감정이 상기도 되기도 한다. 솔직히 학보 임기 자체를 생각할 때엔 △힘들△지침△억울함△화남과 같은 감정들도 남아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은 모두 털어버리고 △행복△스뽀듯함△즐거움△설렘과 같은 감정만 가져가려고 한다. 외대학보로 인해 만들어진 향수(香水)는 미래에 나의 향수(鄉愁)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앞으로 내게 많은 여정들이 새롭게 시작되겠지만 나의 대학 생활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꺼낼 향수는 ‘외대학보’ 일 것이며, 이 향이 무척이나 그리울 것 같다.

말과 글로 일하고 성장했지만 한편으론 나의 말과 글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준 여러 명에게 미안함을, 학보를 넘어 나란 사람의 성장을 도왔던 여러 명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이 글을, 아니 나의 외대학보 임기에 마침표를 찍고자 한다. 참으로도 기나긴 여정이었다.

김지수 편집장



또 다른 능력 뮤지컬 [알리딘]

지난 7월, 열대야가 시작되던 무렵 나는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다. 여행 중 방문한 국가는 △스위스△영국△이탈리아△프랑스로 총 4개국이었다. 3주 동안 4개국을 돌며 다양한 것들을 보고 배웠다. △마치 동화 속 풍경 같던 스위스△식문화가 발달해 먹는 재미가 쏠쏠했던 이탈리아△교과서에서만 볼 수 있던 유명작가들의 작품을 즐길 수 있던 프랑스 모두 평생 잊지 못할 만큼 즐거웠다. 그러나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내게 깊은 인상을 심어준 국가는 영국이다. 이처럼 영국에서의 기억이 좋은 이유는 뮤지컬 ‘알리딘’ 때문이다. 영국의 뮤지컬 문화는 독특하다. 특히 당일까지 팔리지 않거나 취소된 자리들을 당일 아침에 선착순으로 판매하는 제도인 ‘데이시트’는 저렴한 가격에 뮤지컬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나 또한 데이시트를 통해 알리딘을 감상했다. 당시 뮤지컬 알리딘이 큰 인기를 끌어 좌석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기에 예상치 못한 행운을 얻은 듯했다.

알리딘의 내용은 ‘꿈과 사랑’이란 주제를 기반으로 전개된다. 신비의 도시 ‘아그라바’엔 마법의 동굴이 있다. 이 동굴엔 돈과 보석이 가득하나, 이곳의 물건에 손을 대는 순간 입구가 닫혀 빠져나가지 못한다. 도둑질로 생활을 이어가던 ‘알라딘’은 술탄의 자리를 노리고 있던 ‘자파’의 계략에 빠져 동굴에 갇히게 된다. 그러나 알라딘은 램프요정 ‘지니’의 도움을 받아 동굴에서 탈출

하고 지니는 그에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 주겠다고 제안한다. 백만장자 혹은 억만장자를 생각하던 내 예상과는 달리 알라딘의 소원은 참 소박했다. 바로 이전에 만난 적이 있던 공주 ‘자스민’을 만나기 위해 왕자가 되는 것과 ‘지니의 자유’였다. 첫 번째 소원이 동굴을 탈출하는 것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알라딘의 소원은 모두 타인을 위한 것이었다. 좀도둑이었던 알라딘이 소원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은 것에 놀랐다. 사실 뮤지컬 초반, 알라딘의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해 뮤지컬 제목이 ‘알라딘’인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도 했다. 그러나 그의 소원을 듣고 나니 그의 능력은 선한 영향력이란 생각이 든다. 알라딘은 자파를 물리치고 지니에게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삶을 선물했다. 이에 반해 자파는 램프를 획득한 후, 지니보다 큰 힘을 갖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어 스스로 램프에 봉인됐다. 오직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이기적인 소원을 빈자의 최후인 것이다. 이 뮤지컬은 사랑이 전체 내용 흐름의 큰 줄기가 되지만 개인의 사랑을 넘어 국가와 한 인격체를 구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랑이야기라고는 할 수 없다. 나에게 알라딘의 모험은 주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었다. 이렇듯 나 또한 알라딘과 같이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

김나현 기자 98nahyuuuny@hufs.ac.kr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서커스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다 영화 [위대한 쇼맨]

이 영화는 쇼 비즈니스의 창시자이자 꿈의 무대로 전세계를 매료시킨 남자 ‘바넘’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주인공 바넘은 가난한 양복장이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아버지가 전문적으로 양복을 제작해주던 높은 계급 집안의 딸인 ‘채리티’에게 한눈에 반하지만 채리티의 아버지의 반대로 둘은 헤어지게 된다. 하지만 떨어져있는 기간 동안에도 꾸준히 사랑을 키워온 둘은 산업화에 따른 뉴욕 사회의 신분제 변화와 함께 계급의 벽을 넘고 결혼하게 된다. 회사의 부도로 인해 가난해진 바넘은 우연히 길거리에서 마주친 특이한 사람들을 모아 서커스 공연을 시작한다.

시작 후 잠깐 동안은 흥행에 성공하지만 뉴욕의 한 평론가에게 저급한 쇼란 평가를 받은 뒤로 사업은 점차 어려워진다. 바넘은 재기를 위해 상류층을 공략하기로 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토크쇼를 진행하는 높은 계급의 ‘칼라일’을 만나 동업을 시작한다. 칼라일 덕분에 서커스단은 영국 여왕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게 된다. 바넘은 행사에서 유럽 최고의 오페라 가수 제니 린드에게 전세계 순회공연을 제안하고 서커스단은 뒷전으로 한 채 순회공연에만 열중한다. 하지만 제니 린드와의 스캔들로 인해 순회공연은 큰 이익을 얻지 못하고 결국 바넘은 돈과 가정 둘 다 잃게 된다. 하지만 자신에게 다시 마음을 열어준 서커스팀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사업을 다시 흥행시킨다. 또한 바넘은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를 떠났던 가족 또한 다시 바넘을 받아주며 영화는 행복하게 끝난다.

이 영화를 처음 보고는 영화에서 한동안 빠져나오지 못했다. 한시도 눈을 땔 수 없게 하는 화려한 영화 연출과 배우들의 연기

는 여태까지 봤던 뮤지컬 영화들 중 단연코 최고라고 할 수 있었다. 영화 음악 또한 굉장했다. 영화에 나오는 모든 음악은 한동안 내 음악 재생 목록 전부를 차지했다. 꿈을 좇는 내용의 노래부터 남녀 간 사랑을 얘기하는 노래까지 주제를 넘나드는 가사들과 다양한 분위기를 내뿜는 음악은 이 영화에 빠져들도록 하는 이유가 되기에 충분했다. 영화의 핵심 장면인 서커스 장면에선 서커스는 비인간적이고 저급한 예술이란 고정관념을 깨줬다. 물론 동물을 학대해가며 진행하는 서커스는 없어져야 하지만 영화 속 서커스는 공연자들의 굉장한 노력의 결과이자 하나의 아름다운 예술행위란 생각이 들게끔 했다.

영화에서 바넘은 당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상인’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로 서커스단을 꾸린다. 바넘을 통해 사회로부터 무시받고 조롱받으며 어둠 속에 숨어살던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온다. 조롱받고 무시당할 바엔 돈이라도 받자며 시작한 일이지만 그들은 숨겨진 자신의 재주를 서커스를 통해 뽐낸다. 더불어 단점처럼 여겨지던 면이 점점 장점으로 바뀌고 그들은 자신감을 찾아간다. 처음에 조롱하던 사람들도 점차 그들의 매력에 빠져 환호와 격려를 보낸다. 처음엔 돈을 벌기 위해 그들을 세상으로 끌어낸 바넘이 그가 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들을 진정한 한 인격체로서 대하는 모습은 마음 한편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이와 동시에 영화의 내용은 자신과 조금 다르고 낮은 모습이라고 차별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의 경종을 울리고 있다.

최민선 기자 99minsun@hufs.ac.kr

1038호 학보를 읽고

우리학교의 변화를 응원하며

서은지(사회·미디어 18)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천바람이 불어오고 날씨가 쌀쌀해지면 ‘수능냄새’가 난다 고들 한다. 11월은 소위 ‘입시철’이라고 불리며 수능을 비롯한 여러 입학 전형들이 실시되는 달이다. 주말엔 조용하던 이문동이 논술과 면접을 보러 온 학생들로 북적북적한 것을 보면 이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1037호에선 현 시기의 최대 관심사인 우리학교의 입시제도에 대해 다뤘다. 사실 정부의 입시정책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부터 온갖 매체를 통해 들어 알고 있었지만 정작 우리학교의 입시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몰랐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학보는 필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학교의 입시정책에 대해 잘 정리해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 우리학교 입학 전형의 가장 큰 변화인 ‘수능최저기준 반영 여부’가 앞 문단에서 정형별로 설명된 후, 이후 문단에선 각 전형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서술해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우리학교의 대입 관련 절차가 3년 예고제라는 사실을 명시한 것은 학생들이 앞으로의 전형 변화를 납득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구하는 입시 방향과 우리학교가 추구하는 입시 방향을 비교한 문단을 서술함으로써 독자들이 다양성의 측면에서 학교 측의 입장을 고려해볼 수 있게 한 것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하지만 다음 해의 입학전형이 어떻게 변동될지 귀추가 주목된다.는 문장 뒤에 다음 해의 변동사항을 바로 제시하기보단, 두 문장의 위치를 바

꾸는 것이 맥락상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입시제도와 더불어, 1038호엔 생리공결제에 관한 기사도 실렸다. 생리공결제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제도가 아니기에 논란이 많은데, 이를 잘 정리한 기사란 생각이 들었다. 우선, 기사 작성에 앞서 생리공결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는 점에서 학우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기자의 노력이 돋보였다. 기자는 생리공결제에 대한 옹호세력과 비판세력의 의견을 균형 있게 담아냄으로써 기사의 중립성을 유지했다. 특히, 한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총학생회의 ‘생리공결제 전산화’ 관련 공약도 빠뜨리지 않고 담았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다른 학교의 생리공결제 관련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한 것은 좋으나, 아무래도 우리 학교는 공학이다보니 여대와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리공결제의 필요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실음으로써 특정한 방향으로 독자들의 생각을 유도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다.

글을 마무리 하면서, 학교의 크고 작은 변화들을 잘 정리해 학생들에게 전달해주고, 또 그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외대학보 기자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학보가 학우들이 모교에 더욱 관심을 갖게 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많은 학우들이 외대 학보를 접하길 바란다.

1038호 학보를 읽고

변화의 바람 속 지켜야 할 방향성에 대해

신유진(동유럽·우크라이나 18)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이번 해가 한 달 남짓 남은 지금 겨울이란 계절에 걸맞게 매서운 바람이 한창이다. 하지만 바람은 창밖에서만 부는 것 같지 않다. 우리 삶에서도 설 새 없는 변화의 바람이인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바람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방향성’을 생각해야 한다. 변화는 삶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요소기에 ‘어떻게’ 나아가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외대학보 1038호는 우리에게 방향성을 상기시켜준다.

이번 학보의 입시 제도를 취재한 기사에서 우리는 사뭇 달라진 입시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입시 제도들에 관한 기사를 보며 수험생들의 고충이 예상돼 마음이 아파지기도 했다. 이 기사는 우리학교 입시제도, 더 나아가 우리나라 대학교의 입시제도에 대한 방향을 생각하게 한다. 진정한 공정성을 추구할 수 있는 입시 제도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독자들 스스로가 깊게 생각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학보의 선한 영향력을 느꼈다.

이러한 영향력은 학술제 관련 기사에서도 나타난다. 기사엔 △학술제에 관한 정보△학술제 기간 중 발생한 사건 △학술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까지 담겨있다. 특히 학생들의 생각을 담은 글은 학술제가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면을 모두 나타냈다. 이는 독자들이 기사 속 많은 의견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에 그들에게 학술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고

민하게 한다.

생리 공결제에 관한 기사 또한 제도에 대한 찬반 입장을 모두 보여준다. 나아가 다른 학교들의 생리 공결제 운용 방안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다른 학교는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 수 있어 우리학교와 쉽게 비교할 수 있었다. 글썽 학생들의 주거 환경을 다룬 기사는 현실적인 학생들의 고충을 녹여냈다. 실제로 필자 주변에도 많은 학생이 모현음과 기숙사의 주거 현실에 답답함을 토로한다. 이번 기사에선 학생들이 느끼는 주거 환경 문제점에 대한 관계자의 답변을 들 수 있었다. 물론 문제점 개선이 쉽게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도 있었다. 하지만 관계자들에게 이러한 물음을 한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불편함을 자각시켜준 것하기에 답답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됐다. 또한 마지막 문단에 주거 환경 개선 방향성을 제시해줘 독자들로 하여금 불편함 해소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이번 1038호는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사들이 많았다. 실제 학교생활에서도 많이 논의되는 주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독자들에게 흥미를 느끼게 한다. 또한 흥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문제점을 인식하고 방향성을 고려하게 한다. 기사 중간에 내용 요약 을 배치한 것도 독자들을 위한 배려가 보였다. 앞으로도 외대학보가 학생들의 눈과 귀가 돼 학교생활의 등대가 돼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 독자위원회 글을 마친다.



타오르는 마음으로

홍콩에선 연일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해당 시위는 홍콩 범죄인 인도법 도입에 반발하며 시작됐다. 시위 참가자들은 중국 체제 아래 있는 전체주의에 저항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홍콩 정부 역시 무력을 사용해 시위대를 강제로 진압하려 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홍콩 경찰(이하 경찰)은 시위 참가자인 패트릭 차우 씨에 실탄을 발포했고 시위대는 홍콩이공대학교(이하 이공대)를 점거하며 규탄하고 나섰다. 이에 경찰은 이공대 주변을 전면 봉쇄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지난달 30일, 다른 시위대의 항의가 거세지자 결국 13일 만에 봉쇄는 해제됐으나 여전히 경찰은 시위 참가자에 대한 기소 선언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홍콩 시위대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최근 대학가에서도 학생 자치 집단을 중심으로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호 기획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학교 역시 대자보를 통해 이러한 의견 표출의 장이 된 바 있다. 이처럼 홍콩의 시위가 국경을 넘은 공감을 얻는 이유는 우리의 지난날과 너무도 닮아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우리 역시 4·19혁명△5·18 민주화 운동△6월 민주 항쟁과 같은 치열한 투쟁 끝에 마침내 눈부신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때문에 오늘날, 수십

년 전 울렸던 민주화를 향한 수많은 외침이 홍콩을 향한 연대와 공감, 그리고 지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모든 구성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생 사회도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제54대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단인 ‘새벽으로부터’는 대표 공약으로 총장 직선제 도입을 내걸었다. 해당 공약은 교수 협의만으로 진행되던 기존 총장 선출 제도를 학생 참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비단 학생 사회뿐 아니라 나이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회의 마지막까지 민주주의가 스며야 한다.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나뭇가지가 아닌 뿌리에 물을 주기 위해서다. 이렇듯 뿌리 끝까지 민주주의가 실천돼야 비로소 민주화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 민주화를 이뤘으나 그럼에도 끊임없이 경계하며 나아가야 한다. 정체는 곧 퇴보를 의미한다. 연기는 어렵지만 잃기는 너무나 쉽기에 그날의 타오르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안효빈 부장 97anhyobin@hufs.ac.kr



해와 달은 오래되었으나
그 빛은 날로 새롭다.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초정집(楚亭集)』 서문에 “하늘과 땅은 비록 오래되었으나 끊임없이 새것을 낳고(天地雖久 不斷生生), 해와 달은 비록 오래되었으나 그 빛은 날로 새롭다(日月雖久 光輝日新)”라고 한다. 우리 역사에서 12월에 생각나는 일들 가운데, 요즘 나는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생각한다. 세종(世宗, 1397–1450)의 훈민정음 창제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혁신의 사례 중 하나일 것이다. 세종은 1443년 12월에 훈민정음 창제 사실을 집현전 학사들에게 알린다. 이후 최만리(崔萬理, ?–1445) 등 일부 집현전 학사들은 2월에 이에 대해 반대 상소를 올린다. “신 등이 엇드려 살펴보건대, 언문(諺文)을 제작하신 것이 지극히 신기하고 오묘하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를 운용하심이 아주 오랜 세월에 비추어 봐도 뛰어나십니다.” 최만리 등 집현전 학사들은 훈민정음이 이전에 없던 아주 창의적인 것임에 다소 충격을 받은 듯하다.

최만리 등은 “임금님께서 친히 언문 28글자를 만들었는데, ... 신들이 보기에는 글자의 형상은 비록 옛날의 진(秦)나라 때 만들었던 전자(篆字)를 모방했을지라도 소리를 글자로 쓰고 또 글자를 합하는 것은 모두 옛 것에 위배되고 실로 준거할 데가 없는 새로운 것입니다.” 최만리 등의 보수적인 집현전 학사들이 보기에, 아주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들은 세종이 『고금운회거요(古今韻會舉要)』라는 음운서의 번역사업을 통해 한자음의 체계를 세우려고 한 일에 반대하면서, 이때 사용되는 훈민정음도 반대한 것이다. 세종은 이들을 설득하려 한다. 세종은 “너희들이 소리를 사용하고 글자를 합한 것이 모두 옛 글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설총(薛聰)의 이두(吏讀)도 역시 소리가 다르지 않느냐? 또 이두를 만든 본래 뜻이 백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녘느냐? 만일 이것이 백성을 편리하게 했다면 지금의 언문도 백성을 편리하게 할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설총은 옳다고 하면서 내가 하는 것은 나쁘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며, 훈민정음이 새로운 것이긴 하지만 설총의 이두처럼, 나도 백성이 편히 쓰기 위해 만든 것이니, 그러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세종은 자신의 일을 반대한 집현전 학사들을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이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세종은 화가 많이 났다. 결국 그들에게 벌을 주어 옥에 가두고 파직하기까지 한다. 물론 세종은 그들의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임금이 아니었고, 그들을 곧 풀어주고 복직을 시켰다. 그러나 최만리는 끝내 사직했고 고향으로 돌아가 이듬해 여생을 마쳤다. 최만리는 충심으로 간언한 자신의 염려를 알리지 않은 임금께 섭섭했을 것이다. 임금 세종도 자신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최만리에게 섭섭했을 것이다. 옛 것을 잘 따르는 것이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 없이는 새 것도 만들 수 없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든 것이 최만리가 보기에 아주 새로운 것이었고, 그것으로 인해 생길 많은 문제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던 것은 세종도 이해 못할 바가 아니다.

최만리는 세종이 도달한 세계 이해와 그 실천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세종은 땅모양이 다르고 그 다른 땅모양에 따라 하늘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 사이에 흐르는 바람·물소리가 다르고, 그 사이에 사는 동식물 소리와 사람의 소리도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다. 심지어 그는 모든 소리가 각각 하나의 작은 우주라고 생각한다. 그 소리를 아주 쉽고 단순한 글자로 만들어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인가? 그래서 하늘·사람·땅의 소리로 나타내게 할 방법을 찾고, 그것을 첫소리·가운데소리·끝소리로 대치해 드디어 용음합자(用音合字)의 원칙으로 훈민정음을 만든 것이다.

우리는 아주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이에 적응하고 살아야 하나를 걱정한다.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던 과거에도 새로움이 강조됐다. 『대학(大學)』에서, ‘날마다 새롭고, 나날마다 새롭고 또 날마다 새로워지라’는 ‘일신, 일일신우일신(日新, 日日新又日新)’을 강조한 것도 이런 전통이다. 공자(孔子)가 ‘성인들의 일을 잘 정리하고 개선하지만 창작하지는 않는다’는 ‘술이부작(述而不作)’을 강조했으나, ‘옛 것 속에서 그 까닭을 찾고 새 것을 안다’는 ‘온고지신(溫故知新)’도 강조했다. 박제가(朴齊家, 1750–1805)는 그의 스승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옛 것을 본받아 새 것을 만든다’는 법고창신(法古創新)에 대해 ‘옛 것을 따르기만 하는 법고(法古)에 집착하면 때 물을 염려가 없고,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창신(創新)에만 경도되면 근거가 없어 위험하다’고 하여, 법고와 창신 어느 한쪽에 기울지 말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변화는 필요하지만 과거를 잘 살펴 변화해야 한다..

· 김원명(철학과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한 학기를 보내며...

1039호를 끝으로 2019학년도 종강호를 마무리하면서...

김지수 :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행복할 때도 슬플 때도 항상 생각한 말입니다.
이 말을 새기며 버티다 보니 어느새 학보 임기가 끝나있네요. 수고 많았어요, 내 사람들♡

안효빈 : 일 년 반이란 소중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어요.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정 들었던 학보사를 떠나지만 언제나 독자로서 응원할게요! 사랑하는 외대학보, 파이팅!

김나현 :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얻어가는 게 많은 한 학기였습니다. (*´▽`*) 모두 감사해요.
그리고 다음 학기 다들 지켜볼 것이어요.

이상우 : 모두들 고생하셨고 20년도도 파이팅!

이서미 : 중간에 들어왔는데 모두들 많이 도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학기도 즐겁게 활동해요.

조미경 : 여섯 번의 마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항상 즐거웠습니다~
가족 같은 학보사 정말 기대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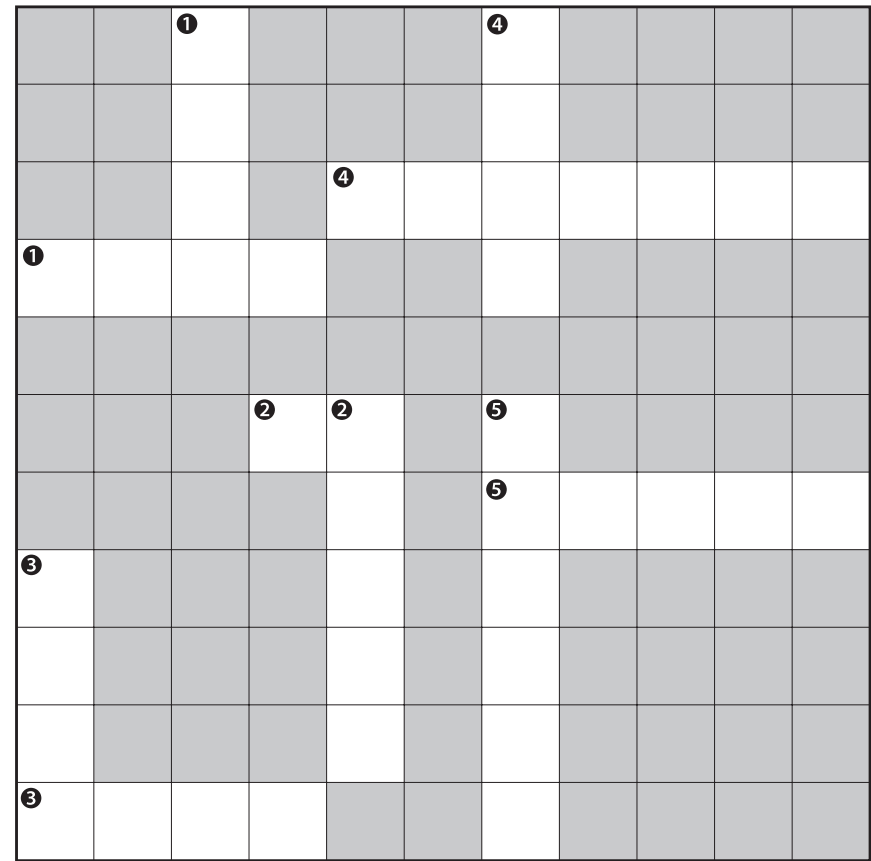
조하영 : 모두 한 학기동안 고생했습니다. 책임감 있게 끝까지 함께 해서 좋았고 다음 학기도 잘 부탁드립니다!

최민선 : 힘든 일도 많았지만 다같이 해내서 뿌듯한 한 학기였습니다. 다음 학기도 즐겁게 해요!

허지나 : 한 학기동안 고생도 했지만 여러분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다음 학기도 같이 힘내요!! 끈끈한 학보사 식구 최고~!~

HUFS PRESS

십자말풀이



- 가로**
- 1. 제 54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선거, 다시 ○○○○에 빛 비출까 (5면 참조)
 - 2. 홍콩 민주화 ○○지자 대자보 훼손과 이 와 관련한 갈등 (3면참조)
 - 3. 우리학교, 동대문구청과 ‘기록물 수집 및 활용 ○○○’ 체결해 (2면 참조)
 - 4. 이문애 우리학교 대학원생, ○○○○○○ 최우수논문상 수상해 (2면 참조)
 - 5. 다미르 쿠센 주한 ○○○○ 대사 초청강연 열려 (2면참조)
- 세로**
- 1. 우리학교 2020학년도 수시 ○○○○ 실시돼 (1면 참조)
 - 2. 서커스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다 영화 [○○○ ○○] (10면 참조)
 - 3. 3년 만의 ○○ ○○, 그 원인은? (8면 참조)
 - 4. ○○○○은 무엇인가 (7면 참조)
 - 5. 세계 문화유산 1호인 아테네 ○○○ ○○○은 도시 국가 폴리스에 있는 높은 언덕을 가리키는 것으로, 수호신을 모시는 신전과 군사적 요충지로도 사용됐다 (6면 참조)
-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를 누르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세 분에 한하여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드립니다.
지난호 당첨자는 페이스북에서 확인해주세요.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구촌을 읽다(15매)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97didu@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김원명

편집장 김지수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우리나라 대표 외교 전문가 박용규 우리학교 교수를 만나다.

△주밴쿠버 총영사관 영사△주제네바 대표부 참사관△주슬로바키아 대사관 대사 등을 지낸 박용규(사회·정외 74) 동문은 37년간의 외교관 생활을 보낸 우리나라 외교계의 살아있는 역사다. 현재 우리학교 LD 학부 초빙교수로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는 박용규 동문이 걸어온 여정을 따라 가보자.

Q1 대학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대학생일 때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당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특히 우리학교가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교 중 하나여서 경찰들이 정문 앞에서 우리를 통제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물론 데모만 한 것이 아니라 대학생만 누릴 수 있는 낭만도 즐겼습니다. 지금은 본관이 들어선 공간에 당시 미네르바 동산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동기들끼리 자주 모여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카드 게임을 하는 등 재미있는 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뻐 지금과 달리 취업에 대한 압박감이 심하지 않았기에 대학생의 낭만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2 외교관이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외국어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우리학교 입학 후엔 외국어를 배울 기회가 많았습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 문화와 역사에도 자연스레 흥미를 느끼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어 국가 고시를 알아보다가 외무고시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외국어에 관심이 많았고 공부도 했었으니 외무고시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교관이었던 시몬에게 외교관에 대한 정보를 들었기에 거부감 없이 진로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Q3 대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외무고시를 합격하셨습니다. 2년 반만에 고시에 합격할 수 있던 비결이 있을까요?

저의 외무고시 합격 동기가 30명인데 그 중에서 절반이 재학 중일 때 합격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특출난 실력으로 합격한 실력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무고시 특성 상 수험생들은 외국어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저는 학교에 다니면서 기본적으로 외국어를 익힐 수 있었기에 고시를 준비하는데 남들보다 이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헌법과 같은 암기 과목을 더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었고 경쟁자들보다 이 분야에서 성적을 더 잘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4 37년간의 외교관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언제였나요?

대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아셈(ASEM) 정상회의를 두 차례나 준비한 것입니다. 첫 번째 회의는 2000년에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는데 이 회의에 아시아와 유럽을 망라한 약 30개국 정상이 참석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당시 준비 기획 단장이란 중책을 맡았기에 큰 책임감을 가지고 정상회의 준비에 몰두했었습니다. 두 번째 정상회의는 2010년에 브뤼셀에서 개최됐는데 이때에도 저는 준비 기획 단장을 맡았습니다. 같은 회의에서 두 번이나 중책을 맡는 게 쉬운 일이 아닌 만큼 저의 외교 생활 중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슬로바키아 초대 대사를 지낸 것도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2006년 12월에 대사로 임명됐는데 한정된 예산과 인력이라는 한계 속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슬

로바키아란 낯선 나라에 처음 발걸음을 내딛다 보니 외교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 인프라가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안정된 슬로바키아 대사관을 보면 첫 주자로서 임무를 잘 수행한 것 같아 뿌듯함을 느낍니다.

Q5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직업 특성상 해외 생활을 오래하다보니 가족과 친구들을 볼 수 없다는 외로움과 단절감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자녀 교육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자녀가 어릴 적부터 잦은 이사로 인해 정착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이사를 가는 것도 어린이들에게 큰 스트레스인데 해외 이주는 오죽했을까 생각하니 아직까지도 가장 미안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걱정만 한다고 해서 걱정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사함들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생활했습니다. 힘든 타지 생활인만큼 아내와 자녀를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서로 힘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자기계발에 집중해 외로움과 단절감 같은 부정적인 생각에 잠식당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마라톤을 좋아해서 해외에서도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타국의 외교관과 함께 폴코스 마라톤을 완주하는 등 성취를 이뤄내며 의미 있는 외교관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Q6 외교관이 갖춰야 할 덕목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우직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외교의 목적은 국력과 외교관의 개인적 역량의 조화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타국과의 신뢰를 하나하나 쌓아 올려야 하는데 저는 이러한 과정을 블록을 쌓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례로 뉴질랜드 대사 시절엔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기 위해 직접 강남 스타일 춤을 추며 뉴질랜드 현지인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이처럼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니 그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뉴질랜드에서 수월한 외교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외교는 천재성과 기적이 아닌 철저한 노력과 땀으로 이뤄진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감입니다. 외교관은 세계의 수많은 국가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이나 빈민국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저는 파키스탄 대사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열악한 국가 환경으로 인한 범죄, 위생 등의 문제를 때문에 파견 기간 내내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외교관의 본분을 떠올리며 임무를 수행했고 파견 생활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낯선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친화력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외교관을 그만두는 이유 중 하나가 잦은 해외 파견입니다. 저는 37년의 외교관 생활 중 20년을 해외에서 보냈는데, 원래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는 걸 좋아하는지라 남들보다 타지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Q7 현재 우리학교의 초빙교수로서 후학양성에 힘쓰고 계신데, 학교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요즘 문과가 취업 시장에서 불리한 입장에 직면하면서

우리학교 학생들도 의기소침해진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문과라고 해서 취업에 불리하다는 편견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회 곳곳엔 우리 학교 출신 사람이 주축이 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외교부는 물론 국가 기관의 요직에 동문이 포진하고 있으며 언론계와 사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 출신들이 빛을 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존재는 여러분이 훗날 사회에 진출했을 때 밀고 끌어줄 수 있는 동아줄이 돼 줄 것입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진로를 설정하고 능력 개발에 힘쓰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학교의 장점을 살렸으면 합니다. '우리학교를 보면 세계가 보인다'는 말처럼 국내가 아닌 세계에 눈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우중 전 대

우그룹 회장의 "세계는 넓고 할 일을 많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이 말처럼 자신의 능력을 믿고 보다 진취적으로 미래를 그려나가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훌륭한 인재입니다.

이상우 기자 99sangwoo@huif.ac.kr

www.korean.ac.kr

2019학년도 겨울학기(제45기)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KFL

2019학년도 겨울학기(제45기) 신입생 모집안내

원서접수 및 지원자격

원서접수 : 2019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12월 23일(월) 오후 4시

지원자격 : 고교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에 관심있는 누구나 가능 (단, 외국인 지원자의 경우 TOPIK 6급 소지자)

접수방법 :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홈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상세 내용 교육원 홈페이지 참조 www.korean.ac.kr)

전형료 : 20,000원

등록금 : 1,490,000원(교재비 포함)

교육일정

2020년 1월 6일(월)~2월 7일(금)

월~금 / 9:20~17:30

(총 126시간 과정)

문의처

한국어문화교육원 운영팀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외국어연수평가원 101호)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전화: 02-2173-2260 / 이메일: cklace@huif.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CENTER FOR KOREAN LANGUAGE & CULTUR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